DEC 1 8 1981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698 1981년12월17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hursday, December 17, 1981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육군참모총장에 황영시 대장

한국육군수뇌 개편

정호영·김윤호·박노영중장, 대장승급

(서울=연합)한국군 내부 수뇌개편으로 황영시 3군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에 임명됐다 전두환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황영시 대장에게 육군참모총장 임명장을 수여하고, 참모차장에는 소준열중장을 임명했다. 주영복 국방장관이 배석한 수여식에서 전대통령은 정호영, 김윤호, 박노영 중장의 대장진급식을 주재했다.

신임육군참모총장 황 대장은 육사10기생으로 미국에서 군사훈련을 받은바있고, 대부분의 군생활을 야전군 사령관으로 보냈으며, 육군참모 차장등을 역임했으며, 최고훈장 통일장등 각종무공훈장 12개를탔으며, 부인과 네명의 자녀를 두고있다.

한편 주영복 국방장관, 윤성민 합참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16일 육군본부에서는 육군참모총장의 취임식이 거행됐다.

예편된 이희성 대장은이 이임사에서"고되었으나 영광된 길이었다"고 33년의 군생활을 회상하고, 한국군은 현대장비, 전투력을 배가시키도록 더욱 노력해 달라고 후임자에게 부탁했다.

신임 황총장은 국가안보와 생존을 수호하는 국군의 사명을 충실히 지킬 것 이라고 말했다.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노래하는 X-마스 트리 : 독일 프랑크푸르트교회의 100명의 합창단원이 15m(50ft.) 높이의 계단에 도열,"노래하는 X-마스 트리"를 만들었다.

담배도난사건 오리무중에

경찰, 수사 비협조 불만

담배 990상자 도난사건을 담당한 메트로 토론토경찰 23디비젼의 에드나·브라운 형사는 15일 전창수, 김두연씨의 장물은익 공급혐의 입건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각도매상에서 회수된 담배는 60상자, 300카톤에 불과, 930상자가 여전히 잠적한 셈이라고 밝혔다.

브라운형사는 그동안 한국인들의 제보전화가 한통도 없었음은 물론, 상점주들이 수사협조를 안해 수사진전이 더디며, 트레일러를 탈취한 주범을 아직 찾지못했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임페리알 회사의 싯가 16만달러의 담배가도난됐고, 이중 일부가 한국인상점과 시중 도매상에서 발견, 메트로경찰은 한국인상점을 중심으로 수사를 펴고 있다.

수사는 계속중이며, 입건된 한국인 4명의 재판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국, 외화규제법 완화

출국시 $6천 지참허가

(서울16일=연합)한국정부는 해외여행자들이 소지할 수 있는 외화에 대한 「외화규제법」을 완화했다.

15일 재무부 발표의「개정해외여행비 지출」법에따르면 해외여행자가 한국에 돌아올때 사용하지않은 외화를 국내은행에 입금하면 이들이 해외여행을 다시할경우, 현재 최고한도 외화 소지액 3천달러의 2배인 6천달러까지 가지고 갈수 있도록 허락한다.

이같은장려정책은 해외여행을 자주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갖고있는 여분의 외화를 국내은행에 예치케 하려는데 주 목적이 있다.

재무부는 또 일반국민이 외화를 입금할때 외화구입출처에 대해서 일절 묻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편 올 7~10월간 한국해외여행자들이 쓴 돈은 총1억9천8백만 달러로 작년같은 기간보다40%나 증가했다.

위니펙공연에 온정손길

이영현씨 $2천 희사

◇이영현씨

본보 주최 위니펙여재봉사및 교포위문 공연에 호응, 토론토 교포사회각계의 온정어린 협찬이뒤를 잇고 있다.

16일자의 첫 발표에 이어 제2차 협찬자로 한인장로교회(목사 박희민), 순복음교회(목사 이필주), 한기철(한인합창단장), 이름을 밝히기 거부한 모 인사($500)등이다.

그중 대표적 고액협조자는 영리무역 대표 이영현씨로 즐겨 2천 달러를 희사했다. 이씨는 홀홀단신 고국을 떠나 고되고 외롭게 세모를 보내는 근300명의 한국여성 재봉사 들을 위해 마음의 세찬을 보내는 셈 치고 이같은 거액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위문공연단을 동반할 이씨는 "사교의 기회도 없이 따분한 일과 연속 속에서 설날을 맞은 아가씨들에게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됐으면 한다"고 16일성금을 회사하는 자리에서말했다.

이씨는 이미 자비를 들여 교포학생 아이스 하키 "화랑"팀을 조직, 수준 높은 팀으로 길러 모국체전 우승, 한국고교팀 초청 경기등 교포사회에서 뜻있는 사업을 벌여왔다.

또한 이씨는 토론토한인 YMCA합창단 후원 이사장으로도 봉사하고 있다.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35 BLOOR ST. W(한국관

등록1호 박학수씨팀

노년회장 후보

내년 1월2일 실시되는노년회 총회의 열기가 서서히 오르고 있다.

현재 노년회장 정인기씨의 2년 임기가 연말로 끝남에 따라 새회장 선거를 앞둔 노년회선거관리 위원회는 14일 회장입후보 제1호로 박학수씨팀의 등록을 접수했다.

전승운(77세), 양혜신(68세)씨를 부회장 후보로 지명, 회장단 후보팀을 구성한 박학수(76세)씨는 남은 여생을 이곳에서 외롭게 지내는 노인들을 위해 일해 보겠다는 일념으로입후보했다며, 노년회가 친목단체의 성격을 떤만큼회장으로 당선되면 더욱 친목위주로 노년회를 이끌어 가겠다고 소견을 피력했다.

박씨는 6년전 노년회가 창설된 이래 노년회 고문으로 수고해 왔다. 그는초창기 노년회가 안고 있던 부채 $2,000을 갚기 위해 열린 2차례의 바자회의 주역을 담당하기도 했다.

부회장으로 출마한 전승운씨는 초대노년회 이사, 현재는 노년회 감사로 노년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양혜신씨도 현재 노년회및 한인회 이사로활동하고 있다.

박씨팀의 약력은 다음과 같다.

◇ 회장 후보
o 박학수
본 적 : 부산
생 년 : 1905년
학력및 경력 :
-부산고 졸
-은행계 투신 37년간(부산 지점장 역임)
-67년 캐나다 이민
-토론토 한인Y, 한인회 이사역임
-한인회 선관위원장 역임

◇ 부회장 후보
o 전승운
본적 : 서울
생년 : 1904년
학력및 경력 :
-전남포상공학교 졸
-철도계 투신(역장 역임)
-71년 캐나다 이민
-노년회 이사 역임
-현재 황해도향우회 회장 노년회 감사

o 양혜신
본적 : 서울
생년 : 1913년
학력및 경력 :
-경남진주 일신여자중 졸
-경북 포항국교 교사
-평양신학2년 중퇴
-서울 대한부인회 서기
-74년 캐나다 이민
- 현재 토론토노년회, 한인회 이사
-캐나다 한인총연합회 이사겸 부녀부장

◇본사에 들린 박학수노년회장후보와 양혜신부회장후보

성탄학예회

한인Y한글학교

오는 19일(토) 낮 11~1시 토론토 Y 한글학교및영어교실 성탄축하회가 비포드고교(크리스티지하철 건너편)에서 열린다.

1년간 배운 어린이들의 재롱, -무용, 기악, 노래 태권도등의 소학예회를 겸한 이날 행사에는 어린이를 위한 게임「루빅스·큐브 컨테스트」도 있으며, 입상자에 시상한다.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 찬 영
변 호 사
RALPH LEVINE
변호사
537-3171 ~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신장개업 X-MAS 선물의집
고급 화장품과 신사숙녀 향수전문
피부와 개성에 맞는 화장품
선택은 여성에게 가장 중요하고 힘든 일입니다.
화장품 : 란콤
헤레나 로빈스타인
맥스 펙터
GOLDFINGER 화장품점에 문의하셔요.
향수 : 지반시
피에르 카르뎅
에프리스
GOLD FINGER 화장품
620 A BLOOR ST. W
전화 : 534-9977

2ND CLASS MAIL NO. 5248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455

흐뭇한 성탄기분 돋우어

한인교향악단 가족음악회

지난 12일 저녁 이스트·욕 컬리지엣고교 강당에서 있은 토론토한인교향악단(지휘 김승순)의 가족음악회(Family Concert)는 크리스마스를 앞둔 초겨울밤을 음악애호인 가족 들이 모여 부담 없이 즐길 수있도록 짜여진 흥겨운 소음악회였다.

한인교향악단의 연주회때마다 특히 감격스러운점은 애국가 연주로 음악회가 시작된다는 것.

이날도 장엄한 애국가가 울려퍼지자 5백여 청중은 일제 기립했다.

"오 캐나다" 연주에 이어 바로 「엘가의 행진곡」(위풍당당한 행진)으로 음악회 분위기는 고조되기시작했다.

스트링·퀴텟(현악4중주)로 윤영철, 김양희, 김명덕, 녹고정의 모짜르트 곡 「아이네·클라이네·나흐트」는 곡의 제목 그대로 작은 소품 연주가 서툴긴 했으나, 연주경력이 짧은 어린연주가들의 귀여운 연주광경은 흐뭇한 미소를 자아냈다. 고세환 플룻, 윤기범피아노의 플룻솔로 2곡, 플룻 김주원, 오보 김미영, 클라리넷 윤기범, 피아노 한메리의 피아노5중주<브라가의 세레나데>는 일찬 솜씨었다.

이날 연주중 토론토한인교향악단의 성장을 가장 드러내준 곡은 슈베르트의 심포니 8번<미완성>. 발족 1년만의 교향악단의 이만한 성장은 놀랄만하고, 특히 현악기는 지난번 2차례의 연주에 비해 많은 안정감을 보여주었다. 대체로관악기는 불안했으나 클라리넷(윤기범)은 독주부문에서 두드러진 솜씨를 보였다.

2부순서에서는 청중과오케스트라가 함께 캐롤 "참 반가운 신도여", "고요한밤 하늘에"를 우렁차게 불렀고, 이어 싱잉·커플즈가 첫선을 보였다.

싱잉 커플즈는 여성합창단 콘셀아미가 해체, 보강된 부부 10쌍의 혼성합창단으로 그동안 매주 금요일마다 연습해 왔다. 실로폰등 오케스트라 단원 8명과함께 연주한 A Christmas Fantasy는 크리스마스 계절의 분위기를 한껏 돋았다.

줄리아니의 기타 협주곡 A장조를 연주한 그레고리·잉글리쉬는 플룻주자 혜원·잉글리쉬의 남편, 기타 연주경력 10년인 잉글리쉬씨는 연주후"교향악단와가족으로 함께 연주하는 기회를 가진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며 나자신 즐기면서 연주했다"고 말했다 그는 부인 혜원씨와 11년전 만났고, 한국말을배워 혜원씨 가족들과 더 좋은 의사소통을 하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선명의 바이올린 독주로 베토벤의「로망스」2번F장조에 이어 신나는 앤더슨곡「크리스마스·페스티발」로 음악회는 끝났다.

유여화 이사장은 인터미션후 가진 인사말에서 지휘자이하 단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창립 1년밖에 안된 교향악단을 위해 보다 많은 지원을 부탁했다.

교향악단은 그동안 디나·레스티, 바니체, 로라·듀티에등 3명의 비한국계 정규단원을 확보했다.

◇토론토 한인교향악단의 가족음악회 연주모습(무지개칼라 전경수씨 제공)

미주에 10대연애소설붐

『사랑과 눈물의 이야기』선풍

섹스·폭력내용 안담고

「4월의 러브스토리」등 180만 부나

데이트,로맨스 일깨워줘

미국전역에 10대 연애소설붐이 일고 있다. 미국의 대출판사인 밴텀사는 최근「사랑과 눈물의 이야기」라는 10대 연애소설을 내바 있는데 이책이 15세이하의 소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것.

이책은 ·[illegible]스나 폭력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다만 10대의 공통적인 고민을 담고 있다. 즉 립이 전화를 걸어줄까 혹은 윌리의 댄스초대에 응할것인가등 로맨틱한 이야기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책인 날개돋친듯 팔리자 더욱더 많은 출판사들이 이같은 연애소설에 덤벼들고 있으나 여전히 돈벌이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연애소설의 선구자는 스콜라스틱회사.

「꿈은 더욱 사실일수 있다」「4월의 러브스토리」「소개를 받고나서」「도깨비불」등 16종의 이러한 소설들을 1백80만부나 판매한것.

이들 연애소설들은 서점에서의 인기가 대단해「첫사랑」시리즈의 경우 초판이 12만5천부나 팔려 재판부터는 5만부씩이나 인쇄한다고 동사의 한 관계자는 밝혔다.

이같은 10대 연애소설들은 어린이들의 심금을 울리기엔 미흡하나 학교밖에서 무엇이든 읽는 12~13세 소녀들에겐 무척 즐거움을 주는 것 같다고 많은 교육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교육자들 가운데는 이들이 찰스·디킨스나 제인·오스틴의 작품과 같은 19세기 작가들의 명작을 읽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그러나 아무것도 읽지 않는것보다는 이런것들이라도 읽는것이 나을 것이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 소설들은 대체로 곧 있게 될 데이트나 로맨스를 가르쳐 주는 구실도 하는데 이같은 안내서는 그들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섹스도 마약도 폭력도 없는 이러한 소설들이 잘 나가는데 대해 출판사들은 별로 놀라지 않고 있다.

5년전만해도 10대를 위한 책들은 누나가 마약을 복용한다느니, 술을 너무 마신다느니, 혹은 이혼이 10대의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킨다느니 하는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출판사로봐선 10대를 위한 책들이 큰 문제거리였었다. 실제로 오늘의 미국 10대는 마약이나 알콜 혹은 이혼 문제등 속의 한가운데 살고 있어 이들이 그러한 문제를 다룬책들을 더이상 읽으려 하지 않고 이제는 로맨스에 눈을 돌리게 된것 같다고 한 관계자는 말했다.

"많이 대출할수록 한국책 다량 구입가능"

미시사가도서관에 100여권 도착

미시사가지역 웃랜드 도서관(Woodland Library 1030 McBride Ave. Missi.)은 새로 100여권의 한국도서를 들여와 교민들의 이용을 바라고 있다. 이 도서관이 한국도서를 갖추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구입한 한국도서들은 미시사가지역 각도서관을 순회열람케 된다.

이 도서관 한인직원 미세스 신은 교민들의 대출이 많을수록 한국도서량도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 지역에 사는 중국인과 인도인들이 잦은 대출을 하는데 비해 한인들의 대출은 별로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비치된 한국도서의 대종은 대중소설류이나 교민들이 고 싶은 책을 도서관 당국에 요구하면 어떤 종류의 책이라도 구입한다고 귀띔했다.

미시사가지역은 이곳 말고도 미시사가 중앙도서관(Central Library)및 여러 브랜치도서관에 한국도서가 비치되어 있다.

"신년교례회"첫시도

한인Y, 맞세배·친교위해

"인사를 나눕시다" "맞세배를 합시다"

고단픈 이민생활에 가장 바람직한 겨레사랑의 나눔 굳은 유대감 조성을 위해 토론토한인YMCA는 새해부터 매년 교포들이 신년에 만나 서로 세배를 교환하며, 한해의 우애를 돈독히 하는「신년교례회」를 실시한다.

82년1월2 일 하오3~5시 Y회관(15 Robina Ave. Tor. Tel: 536-1166) 에서 처음 시도되는 이 신년교례회는 한인와이즈멘즈 알파클럽, 베타클럽, 한국일보, 코리언저널, 뉴코리아타임스, 민중신문의 4대신문사, 실업인협회, 신용조합, 무역관, 외환은행등이 후원한다.

칵테일파티로 실시되는 이 신년교례회는 참가비가 없으며, 일반교민 다수의 참가를 바라고 있다.

모처럼의 황금휴일인 정초, 친지들을 찾아다니는 막대한 시간소비를 절약한 자리에 모두 만나 담소를 나누며 우의를 돈독히 하고, 세배의 목적도 달성하게 될 것이다.

세모에 꽃핀 온정

임씨, 노인들에 봉사

지난 12일(토) 거주장에서는 온정의 손길이 미담을 낳았다.

한인YMCA의 웨스톤영어교실 노인반의 수료파티에 30여명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음식을 나누면서 즐겼는데, 마침 식사하러 이곳에 들렀던 교포 임모씨는 노인들이 즐기는광경에 감동, "1년전 돌아가신 어버이 생각이 난다." 면서 이날의 파티비용 전액을 자진 부담했으며, 고마와하는 노인들 앞에 끝내 자기이름 밝히기를 사양했다.

캐나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모국방문 과학장학생 모집

캐나다·미 지역 2세대상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의회(온타리오 지부장 신복균)는 캐나다와 미국지역의 한국인 2세 과학도를 대상으로 82년도 하기장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16일까지 온타리오지 역의 약 10명의 학생이 관심을 보였다는 김종환박사는 더많은 학생들의 응모를바라고 있다.

한인 2세 과학도 들에게 한국의 과학 기술발전에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위해 내년6월1일 부터 8월31일까지 실시될이번 프로그램의 선발인원은 20명 안팎.

신청기한은 82년 1월 31일까지며, 신청자격은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한국계 학생으로서 현재 자연과학또는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4년생이나 대학원생에 한한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한국 방문 왕복 항공료및 체재비와 한국내 연구소와산업기관 시찰비 일체가 제공되며 해당기관에서 연구조수로 근무하는 특전이주어진다.

이번의 하기장학생 지원자가 재미과학기술자 협회의 회원이 아닐 경우에는 참가신청과 함께 입회원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자세한 문의는 전화 (416)494-4906 또는 881-8349

폴랜드 국가대표선수 망명

토론토착, 만삭의 아내와 합류

계엄령이 폴랜드 국경을 밀봉했으나 파리에서 잠적했던 한 폴랜드 국가대표 배구선수는 캐나다 망명에 성공, 한통의 편지와 짐을 코치에 남겨놓은채 16일밤 토론토 국제공항에 도착, 만삭의 아내와 합류했다.

폴랜드 국가대표 선수인 패스코스키는 파리에서 지난 11월초 국제경기 도중 코치의 눈을 피해 배구팬인 한소녀의 도움으로 잠적하는데 성공했다.

아내 말고자타와 누이동생 바바라는 지난 9월초토론토의 고모댁을 방문, 고모부 베그지노비츠 박사는 폴랜드 사태를 우려, 캐나다에 남아 있으라고 권유했다.

아내와 합치려던 패스코스키선수는 11월초 감시의 눈을 피해 파리주재 캐나다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특별허가를 받기까지 약6주 걸렸다.

불우이웃에 사랑의 손길

맹인후원회, 개안수술등에 도움

온타리오한국맹인후원회(회장 원종필)는 81년도사업계획이던 장학금, 노인맹인구호금, 선교비등을서울의 맹인침례교회(목사: 강용준)및 개안수술을 위한 맹인선교후원회(위원장 김선태 목사) 앞으로 도합 1천3백달러를 송금했고, 이달 하순 다시 900달러를 추가송금 예정이다.

동후원회김열 사무장에 따르면 미시사가 한인연합교회(목사 유한진) 제직회는 불우한 맹인들을 위해 후원회에 200달러를 전해왔으며, 오는 성탄예배의 헌금 전액을 한국의 불우한 겨레들과 온타리오한국맹인후원회를 위해 회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동후원회원 이운호씨가 $48 모금했고, 제일장로교회남전도회도 모국의 맹인 개안 수술 비용으로 $300, 맹인선교를 위해 $200를 서울 맹인침례교회로 송금했으며, 토론토한인장로교회(목사 박희민)는 $100을 회사했다.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가정은 따뜻한 정이 샘솟는 곳……. 피에르·트루도 수상의 신년도 크리스마스카드에 실릴 가족사진이 말해준다. 왼쪽부터 미셀(6세), 트루도 수상 사샤(8세), 쥬스틴(10세). 이중 첫째 쥬스틴과 둘째 사샤는 생일이 크리스마스인 12월25이다. 벽난로 오른쪽에는 싼타크로스를 기다리는 미셀과 사샤의 스타킹이 걸려있다. 사진에 빠진 세 아들의 어머니 마가렛·트루도는 수상관저 가까운 곳에서 따로 살며 아이들을 만난다.

벡커프렌차이스 협회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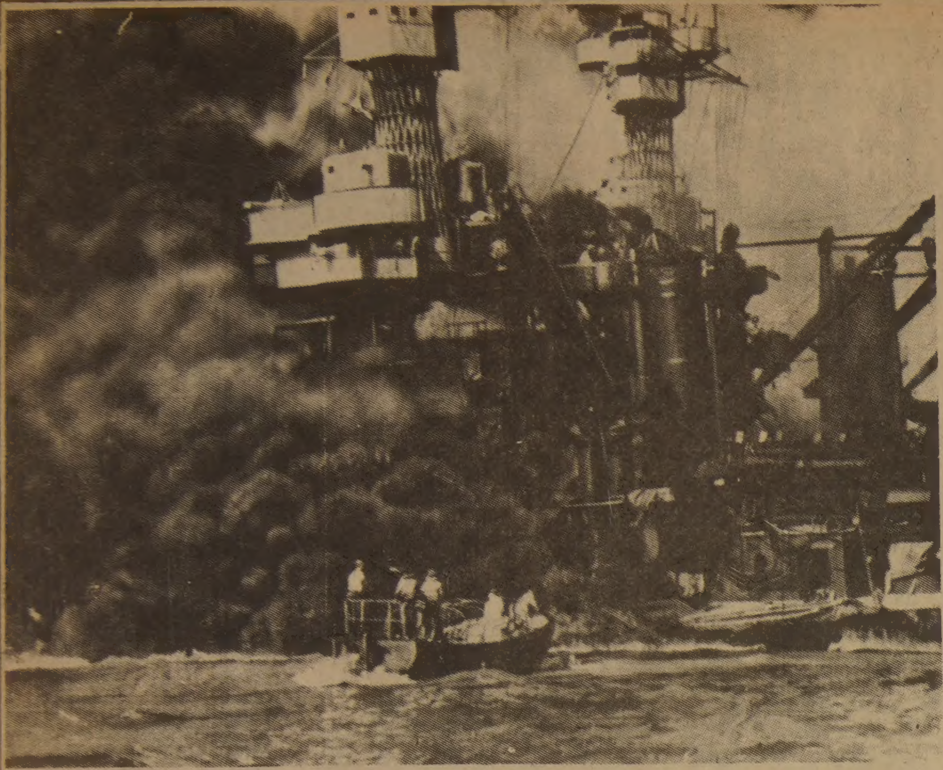
지난 정기총회 이후 조직 재정비를 착수했던 협회는 앞으로 2년동안 회원여러분과 고락을 같이할 이사및 간사님들을 아래와 같이 선출하였읍니다. 똑같이 어려운 여건속에서 희생을 각오한 이사및 간사님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굳게 뭉쳐 우리의 권익을 지켜나가십시다. 기쁘거나 어려운일이 있으시면 서슴치 마시고 협회로 연락주시면 협회와 모든 회원이 함께 하도록 하겠읍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임원명단

회 장 : 김병진(136)
부회장 : 이태준(190)
감 사 : 최백균(200)
총 무 : 김윤배(214)
이 사 : 송종순(4A)
김광웅(81)
홍도익(101)
강일영(104)
홍성해(124)
최학철(149)
김용대(156)
GEORGE PREISZ(191)

당연직이사 : 김병진(136)
이태준(190)
김윤배(214)
지역 간사 : 유재영(226)
최백균(200)
홍승하(126)
김정만(192A)
유무열(196)
김동훈(47)
안병탁(189)
조성학(1045)
안병오(194)

벡커프렌차이스협회 회장김병진



미국은 일본의 진주만공격을 전혀 예상못했는가

이 수수께끼는 아직도 풀리지 않고있다. 존톨랜드가 쓴「불명예」(내년 3월 출판)는 당시의 루즈벨트대통령이 일본의 진주만기습징조를 알아 차렸으나 미국민에 자극을 주어 미국이 2차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일본을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 최근 물의를 일으켰다. 사진은 진주만기습당시 화염에 싸여 있는 전함 웨스트 버지니아호.

멍든 일요일「진주만폭격」40돌

1941년 12월7일-그날은 일요일이었다. 와이키키해변에는 관광객들이 한가하게 산책하고 있었으며 좀 떨어진 진주만에서는 해군장병들이 일요일 외출을 서두르며 구두를 닦는등 즐거운 표정들이었다. 상오 8시께, 갑자기 수십대의 전투기가 진주만을 저공비행, 18척의 전함에 어뢰를 투하, 진주만은 눈 깜짝할사이에 불바다를 이루었다. 사망자만 2천4백3명을 낸 미 전쟁사상 유례없는 패전이었다. 4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디트로이트를 다시 폭격(?)하고있다고 미국민들은 주장하고있다. 일본제 자동차들이 대거 미국에

"폭음없는 폭격"강타속 치열한 경제전쟁 적자늪

전함아리조나호에 폭탄세례를 퍼붓기 시작했다. 이어 메릴랜드호, 캘리포니아호, 웨스트버지니아호등

상륙하여 디트로이트의 자동차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는「경제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미국의 대일무역적자가 2백억달러를 돌파하고 있다.「진주만 기습」과「디트로이트 기습」-일본은 그로부터 40년후 다시「폭음없는 폭격」을 미국에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 미 경제계의 착잡한 반응이다.

상항 인력개발원에 10만달러

한국정부서 보조키로 약속

【샌프런시스코 지사】한국 정부는 새 이민의 정착을 돕는 상항 한인 인력개발원 건물자금으로 10만 달러를 책정했다.

모국 방문에서 27일 돌아온 동 개발원 원장 신연자 박사는 서울 체재중인 지난 20일 노신영 외무 장관과 회견하는 자리에서 이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신연자 여사는 서울 상항 자매도시 위원의 한 사람으로 서울을 방문했는데 사전에 청와대등 비롯한 요로에 협조를 요청했었다.

노외무장관과의 대담에서 상항 인력 개발원이 지난 7년간 2백만달러의 연방 자금을 지원받은 실적을 평가, 그 장래성을 인정하여 건축기금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신여사는 말했다.

동 개발원은 11일 교포들에게서도 모금하는 디너 파티를 개최한다.

성탄 소예술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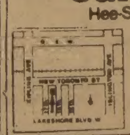
불우겨레 돕기모금

토론토한인가톨릭학생회(중학생회회장 유현진)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한국의 불우이웃돕기 모금을겸한 연극, 노래, 태권도의 소예술제를 실시한다.

20일(일) 하오3시 새성당(83 Power St. Tor.) 지하강당에서 열리는 이예술제의 성극은 "아기 예수 탄생"(20분 짜리)으로 등장인물 15명이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0. yr. $8. mo. 구독료(선금)연 $90. 월$8,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⑩⑦

팔리·모왓 원작, 원 재 훈 옮김

이 망령들은 캠프에 닥쳐온 재난이 그들이 평소에 갖고있던 귀중한 물건들을 챙겨갖고 도망칠 여유가 없을정도로 무자비했다고 알려주는듯 했다. 그러나 그들이 어디로 도망칠수 있었을까? 얼마나 무서운 공포였길래 여인들은 자기가 애지중지 나무를깎아 공들여 만든 쟁반을 아무렇게나 내동댕이 쳐서지금은 긴여름의 햇빛에 말라서 쪼개지고 있을까? 그리고 남자들은 그들의 카약과 겨울썰매를 한군데모아 둔채 어디로 도망칠 수 있었단 말인가?

한때 이캠프에는 텐트를 세웠던 자리가 상당히 컸고 대부분은 직경 20피트가량이 되는것으로 미루어보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앙쿠니호숫가의 텐트들은 적어도 한 식구당 12명은 족히 수용했을 것 같고 그중 하나는 이미 깊은 세월속으로 수수께끼처럼 없어진 사람들은 백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크기였다. 그런데 갈만한 곳이 어디였을까?

대답은 쉽게 찾을수 있었다. 캠프뒤로 2~3백 야드에 불쑥 튀어나온채 쪼개진 검은 바위가 있었다. 나는 거기서 내가 찾으려던 사람들을 발견했다. 이글루모양으로 생긴 돌로된 납골당인데 주위에는 생전에 쓰던 기구들이 흩어져 있었고 납골당은 제한된구역에 맞도록 어떤것은 한곳에 두세사람이 묻혀있을 정도로 매우 촘촘히 만들어져 있었다. 한곳에서 나는 적어도 37개를 셀수 있었는데 한꺼번에 혹은 1~2주 사이에 만들어진 듯 했다.

이들은 만들어진 구조가 형편없었고, 납골당 안에 안치되어 있는 도구 들을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그때 상황이 제대로 식을 갖추지 못하고 장사를 지낸것이 확실했다. 더욱 확실해 보이는것은 한 식구가 한꺼번에 죽어서 유물들을 식구대로 나누어 묻어서 영혼이 하늘의 신 카일라의 세계로 가면서 갖고 가도록 했을것이다.

몸서리치는 공포를 느끼면서 나는 주위를 더 조사해보니 이 납골당에서 좀 떨어진 곳에 공포에 떨며 마지막까지 생존했던사람들이 꼼짝못하고 죽어간 곳을 발견했다. 낮게 패인 구덩이에 이끼속에 파묻힌 뼈들이 고달픈 황천길에갖고 갈 아무런 도구도 없이 방치되어 있었다.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묻힐때 극한에 달했던 공포와 함께 이곳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

분명히 어떤사람이 아직 살아 있었다면 무덤이 늘어갈때 재빨리 다른곳으로 옮겨갔을 것이다. 죽은 사람을 그 장소에 그대로 남겨놓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도망칠수도 있었을 것이다.

캠프를 떠나기 전에 죽은 망령들이 나에게 그 무서웠던 공포를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나는 선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

비록 파이프를 부는것같이 바람소리만 들렸지만내 귀에는 이 바람소리를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알 수 있을것만 같았다.

장사지낼때 많은 무덤들위에 사슴 뒷다리를 얹어놓은

흔적으로 보면 굶어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사람의 뼈가 그대로 상하지 않고 있는 것은 싸움이 벌어져 살해된 흔적도 없었다. 키네투아미우트는 우리들이 준 선물때문에 몰살된 것이다. 그것은 가꾸미의 이야기에서 말한 큰 고통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아마도 몇사람은 도망쳤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되었을까?

이 대답 역시 눈부신 백사장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다갈색의 들판으로 답사할 때 얻을 수 있었다.

그 호수 연변에서 2~3마일쯤 왔을 때 대여섯 개의 천막을 치는 돌이 발에 채여서 보니 정말로 엉성한 텐트를 쳤을 것같이 느껴지는 곳에 그 무서운 공포에서 도망쳤던 사람의뼈가 아무렇게나 누워 있었다.

오소리가 먹고 남은것들임에 틀림없었다.

그다음 일마일내에서 풍우와 짐승들로부터 보호하려고 했는지 바위틈바구니에 처박아놓은 사람뼈를두번이나 보았다.

(계속)

KUSA크리스마스파티

년말을 맞이하여 이번 KUSA에서는 크리스마스 파티를 갖고자 하오니 여러분들 한명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1년 12월23일(수) 저녁7시~2시

장 소 : Tartu Banquet Hall
310 Bloor St. W.

회 비 : 어드벤스 티켓 : 멤버 $10
Noon 멤버 $13
at the door $15
(디너포함)
※드레스는 Semi Formal

연락처 : 298-0432(천명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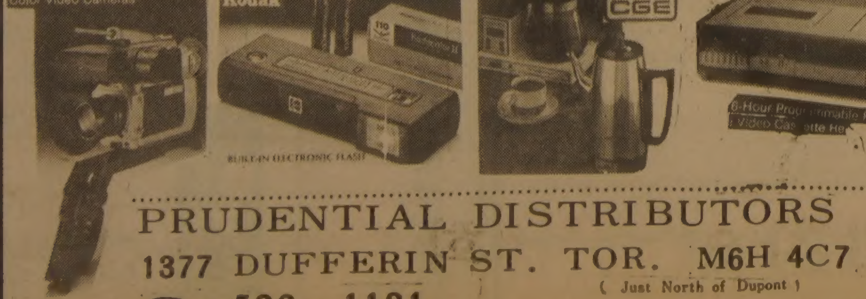
한국 대학생회 회장
천 명 호

도매상에의 초대

—AN INVITATION TO ALL THE RETAILERS—

★소매업자만 거래함★

우리 도매상에는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상품이 진열돼 있읍니다.
기프트, 노블티, 사진기구, 필름, 은(銀)장식기구, 비데오, 선물용품등.



PRUDENTIAL DISTRIBUTORS
1377 DUFFERIN ST. TOR. M6H 4C7
(Just North of Dupont)
☎ : 536-1131
영업시간 : 월~금 9시~하오5시30분(토, 일요일 휴업)

당진향우회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고향(당진)에서 오신분들과 자리를 같이 하고자 하오니 충남 당진에서 오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연락처 : 233-4359(Mr.장)
534-0237(Mr.구)

당진향우회

各黨、組織강화·歸鄕활동 채비

定期국회 閉會앞두고 부산

年內 後援會구성 마무리
地域議員 黨員現地교육 참여토록
民正

금년도 정기국회가 14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本會議를 마지막으로 90일간의 활동을 모두 끝내게됨에 따라 각정당은 그동안 미뤄온 후원회결성과 본격적인 귀향활동준비를 서두르고있다.

民正黨

民正黨은 오는 21일 의원총회를 열고 귀향활동 지침을 시달할 예정인데 각지구당위원장들은 정기국회 閉會와 동시에 지역구로 내려가 民正黨의 議員立法활동、교육세의 財源稅부가 철폐와 아울러 通禁解除건의등 정기국회활동전반에 대해 설명하도록 할예정이다。

民正黨은 특히 국회가 열리지않는동안 지역구출신 의원들이 가능한 출신지역에서 黨員의 현지 교육에 직접 참여하여 지휘 감독하도록 귀향활동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民正黨은 年內에 총1만명의 중앙소집교육과 10만명의 現地교육을 금주말까지 모두 마치고 年末年始는 교육훈련을 쉬고 내년1월20일께부터 再開、새해 교육을 개시할방침이다。

民正黨은 또 25일이전 약1천명의 전체회원이 참석하는 후원회의 총회를갖고 후원회결성을마무리、年法定모금한도인 20억원의 모금을 끝낼 예정이다。

民正黨은 25일을 전후하여 5개반으로 나누어 前方師團 시찰에 나설 예정이다。

組織정비特委 구성키로
民韓

民韓黨

民韓黨은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날인 오는19일 中央常務委員會를 처음으로 소집、正·副議長을 선출、創黨후 1년동안 갖추지못했던 黨公式기구를 정식발족시키고 黨紀委員會도 곧구성할 방침이다。

民韓黨은 또 定期國會閉會후 3백여당원을 상대로 冬季훈련을 실시할 예정인데 金銓圭훈련원장은 『夏季당원훈련계획이 黨의 자금사정으로 미뤄졌지만 이번에는 3백여명의 당원을 대상으로 3~4일의 당원훈련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民韓黨은 의원들의 歸鄕활동에 대비、歸鄕活動지침을 마련중인데 이지침에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政治關係法案을 비롯하여 民韓黨이 제출한 각종法案의 내용과 주장및 院內활동선과등이 포함된다。

한편 民韓黨은 이번정기국회가 끝난후 내년봄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때까지를 조직정비기간으로 잡고 먼저 6개사고지구당 조직책을 모두 全國區現役의원으로 임명할 계획이며 이에따라 내년 1、2월께 組織강화特委를 구성할것으로 보인다。

民韓黨의 6개사고지구당은 ▲서울城北▲서울江南▲靑陽·洪城▲浦項·迎日▲河東·南海▲固城·忠武지구당등으로 모두 위원장이 脫黨했거나 위원장이 없는것이다。

그외에 5~6개 지구당이 不實지구당으로 판명되어 組織강화特委가 구성되면 이곳에 대한 組織實査도 아울러 착수할것으로 보인다。

對話통해 黨이미지부각
국민

국민당

국민당은 15일 議總을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휴회기간중의 귀향활동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당은 귀향활동때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당이 제출한 通禁해제건의안이 채택된것을 지역구민들에게 홍보하는한편 備正공휴일 지정건의안、地自制早期실시법안등 중요문제들을 국민당이 선도했다는점을 강조、당의 이미지를 크게 부각시킬 방침이다。

국민당은 또 소속의원25명 전원과 지구당위원장들이 市郡단위로 「당원 단합대회」를 갖고 조직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자연부락을 순회하며 사랑방좌담회를 열어 黨勢를 확장키로했다。

이와함께 후원회구성을 위해 총재단、소속의원、중앙위원、사무처간부들의 후보자를 할당하여 금년안에 명단을 제출하고 내년초 2백명정도로 일단 후원회구성을 완료키로했다。

民正、卒業定員制 개선촉구

무조건30%脫落再考、절대點數制로

民正黨은 大學入學定員의 30%를 탈락시키도록 되어있는 현행 졸업定員制가 부작용을 일으킬것으로보고 상대적인 점수평가제도를 절대적인 점수평가제로 전환할것을 검토중이다。

黨政策위의장은 12일 현행졸업정원제가 ▲우수人力확보 ▲국민경제적현실 ▲입학및졸업생수의 適正化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점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인실력차로 30%가 무조건 탈락되는 제도는 再考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는또 『정부가 최근졸업정원제의 문제점을 개선키위해 學士學位수여자와 修了證수여자로 분리、졸업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것역시 일부 우수한학생들을 희생시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전제、『民正黨은 人力의 需給이나 활용면에서 부작용이없는 제도를 연구검토하여 정부측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美 엘라배마州知事 全대통령 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12일상오 청와대에서 美엘라배마州의 포브·제임스知事를 접견하고 환담했다。〈사진〉

이자리에는 徐錫俊상공장관과 許愼九金星社사장、워커駐韓美大使가 배석했다。

유엔事務總長에 쿠에야르氏

페루의 前外相

【유엔12日=金泰雄특파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 유착상태를 깨고 신임유엔사무총장으로 知韓派인 사비에르·페레스·데·쿠에야르(61)를 선출했다。

쿠에야르는 발트하임사무총장밑에서 특별정치담당사무차장을 지난5월까지 약2년동안 지냈으며 발트하임과 함께 남북한을 방문했으며 남북한의 유엔참구역할을 맡았던 인물이다。

◇쿠에야르氏

유엔총회는 쿠에야르를 사무총장으로 뽑은 안전보장이사회의 건의를 내주초 만장일치로 인준할것으로보인다。

라틴아메리카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유엔사무총장에 뽑힌 쿠에야르의 임기는 5년으로 1982년1월1일 취임하게된다。

10일의 안전보장이사회 선거에서는 9명의 후보자중 2명(파나마외상과 모리시어스대사)가 사퇴해 7명을놓고 선거를했다。 쿠에야르는 15표중 10표를 얻었다。 소련은 반대하는대신 기권했다。

"安保강화·經濟발전 기여할수있게"

日、對韓經協타협 기미

美、高位관리밝혀

【워싱턴12日=曺淳煥특파원】 美국무성의 한 고위관리는 『일본이 한국경제 발전과 안보강화라는 두 목적에 미국처럼 기여할수있는 방법으로 한일 양국경제협력방안에 타협을 이룩해나가는 여러조짐이 보이고있다』고 11일 미국의 對아시아정책 배경설명에서 말했다。

이 국무성 고관은 약40명의 미국및외국특파원들이 참석한 해외기자클럽 모임에서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정책을 전망하면서 『미국이 강력한 한국경제와 안보에 기여해왔으나 한일양국의 경제협력은 양국이 해결해야할문제』라고 말했다。

이 국무성고관은 또 『일본은 관세장벽을 제거하여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기본적 구조 변화」를 가져와야 할것』이라며 1백50억~1백8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對日무역적자가 곧 시정되지는 않더라도 미국이 일본시장에 더 접근할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이 고관은 이어 『혹자는 金日成이 그 아들을 후계자로 올려세우려는 과정에서 북한에 변화가 있을수 있다고 생각할수도있으나 중요 정책변화는 일어나지않을것으로 보이며 한국을 빼돌리고 미국과 직접협상하려는 태도에도 변화기미가 보이지않고있다』고말했다。

이국무성고관은 한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인권개선문제는 아직 진전이 있으나 對韓관계등에서 비단 지배적인문제는 아닐지라도 하나의 중요요인이 되고있다』고 말했다。

東·西 解氷의 미소

헬무트·슈미트 西獨수상(左)이 11일 東베를린의 쉐네펠트공항에 그를 마중나온 에리히·호네커 東獨공산당서기장에게 무엇인가를 가리켜 보이고 있다。 두사람은 3일간 東베를린교외 베르벨린湖畔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베를린11日AP電送=聯合】

사하로프 彈壓풀라
올 노벨賞수상자들

【스톡홀름(스웨덴) 11日UPI=聯合】 9명의 금년도 노벨상수상자들은 11일 소련의 반체제물리학자 사하로프를 「인간한」의 상징으로 찬양하고 고르키에서 유배생활을하고있는 그에대해 모든제한조처를 철회하도록 소련당국에 촉구했다。

2천7백50명의 청중이 모인 스톡홀름시청에서 의학상수상자 토스텐·위셀박사는 75년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사하로프가 며느리의 출국비자를 얻어주기위해 17일간 단식투쟁을 벌인데대해 커다란경의를 표했다。

위셀박사는 『정신의 자유는 역사를 통해출곤 위협받아 왔으며 오늘날도마찬가지』라면서 『우리의 노벨상동료인 안드레이·사하로프보다 더 위대한 용기와 인간저항의 상징은 찾아볼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권력을 가진자들이 지식에대한 우리의 욕구를 그들 자신의 목적을위해 사용해서는 결코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시상식을 갖는 평화상수상자를 제외한 9명의 수상자들은 소련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에게 전문을 보내 사하로프에 대한 「조처를 개선할것을 촉구하면서 그에대한 제한조처완화가 동서과학자간의 관계정상화에 도움이될 것이라고 말했다。

英國에 最惡의 暴雪

列車충돌등 잇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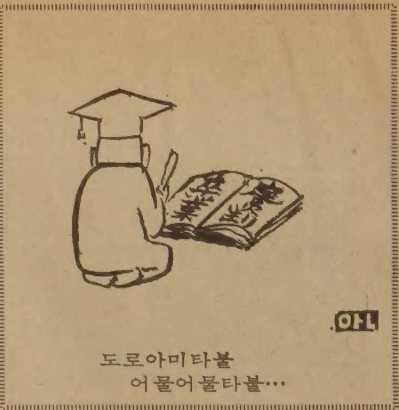
【런던11日UPI=聯合】 11일 4일만에 두번째의 심한 눈보라가 영국을 강타、열차충돌、공항마비、도로통두절사태를 야기시켰으며 심지어 영국국회 의사당탑의 빅벤시계바늘까지 멈추게했다。

지난63년이후 최악인 이번 폭설로 영국 북쪽의 많은 지역에는 60cm의 눈이 쌓였으며 런던으로통하는 주요고속도로들에는 발이묶인 자동차와 트럭들로 일대 혼잡을 이루었고 최근 새로 운행되기시작한 영국철도회사의 글래스고-런던간 고속열차도 운행을 중지했다。

런던에서는 진눈깨비、서리를 동반한 바람으로 빅벤의 시계바늘이 12시27분을 가리킨채 멈추었으며 저녁의 교통혼란경고속에 강추위의 거리에서는 수많은 크리스마스쇼핑객들과 직장인들이 일대혼잡을 이루며 귀가를 서둘렀다。

한편 히드로 기트윅 리버풀 맨체스터공항이 폐쇄되어 수많은여객들이 공항 로비에서 발이묶였다。

社會漫評



金鍾卿의원 別世

民正黨의 金鍾卿의원(全國區)이 11일밤10시30분 서울城北區貞陵4洞266의 4 자택에서 宿患으로 별세했다。 향년 59세。 유족으로는 부인 柳根順여사(51)와 4男이 있다。

◇故金鍾卿의원

故金의원은 普成전문학교를 졸업한뒤 서울地檢검사와 부장검사、大檢검사、법무차관、大邱高檢검사장、검찰총장을 거쳐 지난3월 11代국회의원에 당선됐다。

故金의원의 장례식은 15일상오10시 국회의사당서 국회장으로 거행된다。 장지는 강원도春川市松岩洞 선영。 연락처 ㉢2887 ㉡1733

全대통령 弔意

全斗煥 대통령은 12일 故金鍾卿의원(民正)빈소에 金炳薰청와대의전수석비서관을 보내 弔意를 표했다。

文龍珠씨 議員승계

金鍾卿의원의 별세에 따라 民正黨 全國區 예비후보 2번인 文龍珠 民正黨여성국장이 의원직을承繼하게됐다。

文국장의 의원직승계는 11代국회들어 鄭昌和의원에 이어 2번째로 文국장은 중앙선관위의 승계결정에따라 19일 폐회되는 이번국회회기안에 의원등록절차를마치고 본회의에서 의원선서를 한다。

◇文龍珠씨

◇文龍珠씨약력 ▲黃海道安岳출신(48세) ▲中央大法科卒 ▲共和黨 서울市부녀부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감사

民正黨여성국장

地平線

세계인구의 5.2%선인 미국이 전세계총생산의 24.9%를 차지하고있다는 것은 미국의 경제학자 허버트·블로크라는 사람의 계산이었다。 말하자면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센 나라인 미국에는 이밖에도 놀랄만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예를들자면 하루 5천9백62쌍이 결혼하고 1천9백86쌍이 이혼한다고 「미국의 평균-일상의놀랄만한일들」이라는책은 밝히고있다。

▼마이크·파인실버와 윌리엄·미드라는두사람이 쓴 이책은 이밖에 미국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꼽고있다。 1천3백70명의 남자가 정관수술을 받고、2천7백40명의 10대소녀들이 임신한다。 5천2백명이 매일 죽는데 이중 1천70명은 암으로 죽고있다。 보스턴의 고교생 3명중 1명꼴로 수업을 빼먹고、7천40명의 아이들이 집을 나간다。

▼끔찍스런 것은 미국의 놀랄만한 범죄다。 강간은 8분마다、강도는 78초마다、살인은 27분마다 한건씩 일어나고 있다한다。 지난2월 연방 대법원장 워렌·버거는 그러나 살인이 24분마다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했었다。 연방수사국(FBI)의 통계를 보더라도 강간、강도、살인、폭행등의 강력범죄는 작년에 1백33만건을 넘었다。 FBI는 살인을 23분에 1건으로 잡고있다。

▼미국의 범죄중에는 한해동안 만대의 자동차를 훔쳐서 필린퀸、멕시코같은 나라로 수출하는 조직적인 범죄산업도있다。 그래서 미국의 교도소들은 지금 초만원상태라고한다。 교도소의 인구는 지난6월말 현재 34만9천명을 넘었다고 법무성은 밝히고있다。 레이건 행정부가 20만달러를 짜낸 교도소 증축을 위해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개방된 사회에 와서 인권을 보장하면서 범죄와 싸우는 FBI는 「보이지않는 정부」라고 불릴만큼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있다。 사건발생 28일만에 2백만달러 강탈사건을 해결해서 이름난 명성을 지킨셈이다。 그러나 사건은 아직 끝난게 아니다。 1백70만달러가 아직 감춰져 있다。 5의 사나이」가 있을것이라는 추측이다。

▼어쨌든 FBI가 범인을 잡은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우리로서도 식은땀이 흐르는 일이 아닐수 없다。 KAL기가 케네디공항에서 현금뭉치를 인수받을 때엔 무게도 확인하지않고 인수증에 적어준 날짜도 적당히 써줬다고 한다。 앵커리지공항에서도 조종실을 비워뒀었다한다。 거래은행의 암호가 어떻게 새어나갔는지도 마음에 걸리는 대목이다。 FBI의 등에 업히는 행운만 믿지말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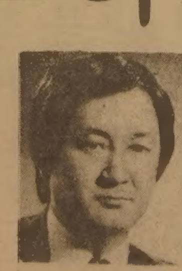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서울 여행사
IATA
교포특별우대
수속에서 출발
관광, 도착까지
●국내·국제 항공표 일체
●이민·방문 초청 안내
631A BLOOR ST. W.
535-6004, 8801
293-9970, 5823
최동주

생명의 말씀
CITY-TV : 체 널 79
케이블 7
일요일 8 : 30~9AM
MTV : 체 널 47
케이블 4
목요일 12 : 30~1PM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쪽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매상 : $5,500 아스킹 : $18,950 네트 : 년 $120,000
렌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온타리오 인컴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주소 : 609 BLOOR ST. W
B)535-1251 R)536-4250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카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1-2361~4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구독 신청서
NAME ....
ADDRESS .... APT ....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한국일보
특집판
取材팀
◇文化部 丁 薰 기자 梁 平 〃 禹桂淑 〃 崔成子 〃 金周彦 〃
◇外信部 朴涌培 차장
◇寫眞部 權周勳 기자 鄭在斗 〃
◇東京 宋孝彬 특파원

屋內의 季節·긴긴 겨울밤을 讀書로 보람있게

책을 읽는 민족이라야 산다

讀者·著者·出版人 3位1體가 필요하다

傳來의 崇文사상을 물질문명이 잠식
著者빈약·독서층얇아 출판사도 不實
취미아닌 습관화로 人間다운 생활을

『도서는 단순히 종이와 잉크로 만들어진 상품만은 아니다. 도서는 인간정신의 표현이며 사고의 매체이며 모든 진보와 문화발전의 바탕이다』
지난 1968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圖書의 해」에 국제출판협회 총회가 圖書의해를 기념, 圖書憲章을 채택하면서 그 첫머리에 책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한적이 있다.
이 憲章은 사람은 누구나 책없이는 인간다운삶을 영위할수 없다는것, 책보다 더 소중한것이 없다는 강한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이같은 평범한 진리를, 너무나 상식적인 상식을 우리는 오랫동안 외면해왔으며 어느사이에 우리민족은 책을 멀리하는 민족, 출판문화가 꽃을피우지 못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돼버린 것이다.
그러나 모든결과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한듯 전적으로 이같은 결과를 우리들 자신의 책임으로만 돌릴수없다.
역사적으로볼때 우리민족은 글을 더없이 소중히 여기는 민족이었으며 우리 선조들의 崇文사상은 하나의 생활규범이기도 했다.
金海星교수 (서울女大·국문학)는 이같은 마음가짐, 생활규범이 물질만능의 西歐문명이 유입되면서 우리의 전통문화사상을 파괴한 탓으로 분석한다. 즉 西歐문명이 들어와서 우리는 현대문명을 얻었지만 물질만능사상이 높아가면서 상대적으로 정신문명을 약화시켜가고 있다는주장이다.
金교수는 가장 책을 많이 읽어야하는 계층인 대학생들을 예로들면서 최근에 金교수자신이 조사한 데이터를 들려준다. 도대체 대학생들이 한달에 읽는 책의 분량은 교과서를 제외하고 선 겨우 한권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독서」라는 無形體의 스승, 정신적인 스승을 외면하고 있다는 反證이기도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閔泳斌씨는 『우리의 문화가 역사적으로 많은 외侵을 당하면서 전통의 맥락이 단절되는등 傳債이 정렬돼 오늘의 결과를 낳은것이 아닌가』 하는 풀이도 하고 있다.
그는 지난72년 미국 프랭클린·북·프로그램의 고문인 시웨크씨가 우리나라 출판계를 살피기위해 내한했을때의 얘기를 이렇게 전한다. 시웨크씨는 東大門대학천가에 즐비한 도서덤핑시장을 보고서 『한국서점은 책을 너무나 함부로다루고있다』고 지적하더라는것이다. 시웨크씨의 표현은 서점앞 길바닥에 함부로 책을 쌓아놓고 있어서 행인의 발부리에 책이 차이기도하고, 흙먼지에 책이 더러워지는것을 보고 개탄한 말인것이다.
그러나 책은 저자·출판인·독자층이 3위일체로 협동해야만 비로소 제구실을 다할수 있는것.
이같은 관점에서본다면 우리나라는 저자·출판인·독자들이 하나같이 문제점을 안고있어서 책이 제구실을 못하고있는것으로 지적되고있다.
우선 저자부터 살펴보자. 저자에대한 평가는 독자층으로부터 가장 민감하게 나온다.
회사원 P씨(36)는 『요즘엔 읽을만한 책이 없다』고 말한다. 읽을만한책이없다는 표현은 저자층의 빈곤을 의미하며 저자가 독자의 수준을, 독자들의 원하는바를 따라가지도, 부응하지도못하고있다는 말이기도하다.
P씨는 이를 우리나라만이 갖는 특수상황과 여기에 內在되는 여러가지 제약조건탓으로도 돌린다.
출판인문제는 3위일체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또 가장 先決을 요하는 문젯점으로 부각된다.
出協에 의하면 우리나라 정부수립 이래 지금까지 모두 6천여개社의 출판사가 설립됐으나 그동안 4천여社가 없어지고 2천여社만이 현재 문공부에 등록돼 있다. 그만큼 浮沈이 심했다는 것인데 이가운데 지난해말 현재 出協에 가입한 7백47개 會員社중 5백74개社만이 1種이상의 책을 발행했고 나머지 1백73개社는 한種의 실적도 내지 못했다.
그러나 納本실적이 있는 5백74개社 가운데 월평균 2種이상을 낸 출판사(연간 21種~25種)는 겨우 1백67개社며 연간 10種이상을 낸 출판사는 27개社에 불과했다. 따라서 4백7개社는 평균 10種미만의 영세한 규모의 출판사인 셈이다.
기업규모를 보더라도 출판사의 평균자본금은 3천1백60만원(79년한국생산성본부조사)이며 그나마 자기자본이 76%, 타인자본이 24%에 불과한 실정이다.
마진率을 따지면 한층심각하다. 역시 出協의 조사에의하면 문예물의 경우 3천부를소量판매한것을전제로 수익률을 계산할때 (공고료,자본회전율 不計上) 74년도(1부당 정가9백원)에는 외형상 3·7%의 이익이 있었으나 81년(1부당정가 2천6백원)에는 오히려 4·7%의 적자를 본것으로 되어있다.
한편 독자층도제역시 문제가크다. 우리나라 출판물의 평균발행부수가 初版이 3천5백88부, 重版이 2천51부라는 통계가 가리키듯이 독자층이 엷은것이다.
특히 지난해12월2일부터 시작된컬러TV의 방영으로 한층 책을 멀리하고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出協의 한관계자는 지난해보다 금년들어 발행부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로든다.
그러면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 것일까.
金泰吉교수 (서울大·철학)는 정부차원에서도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지만 정부의 힘만으로는 斷間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으며 국민각자의 자발적이며 적극적인 호응이 있을때 비로소「독서의 생활화」라는 목표에 접근할수있을것으로 내다보고있다.
金교수는 국민각자로하여금 독서운동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게하기위해서는 몇가지 先行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로 여러계층의 독자들에게 적합한 좋은 책이 나와야한다는것이다. 좋지못한 책 백권을 읽는것보다 좋은 책 한권을 읽는것이 바람직하며 좋은 책이 읽히기위해서는 좋은 책이 넉넉해야한다는 것이다.
또 좋은책이 많이 나올수있기 위해서는 출판업자들과 필자들의 자세가 바로잡혀질것을 촉구한다. 수준이 낮은 독자층에 영합하여 돈벌겠다는 태도를 버리고 저술과 출판본연의 긍지와사명으로 복귀해야한다는지적이다.
둘째로 좋은책과 나쁜책을 가리는 수준을 바로세우고 올바른 독서지도를 실천해야한다는것. 우선 교육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책을 읽고 그가운데서 좋은 책을 골라서 쉬운것부터 차례로읽도록 어린이들,또는 젊은이들을 이끌어야한다고 권고한다.
한편 소설가 金容誠씨는『독서는취미가아니며 습관이 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 독서가 습관화되는것이 정상적인 사회이지 취미가되는 사회는 비정상의 사회라는 주장이다. 金씨는 이와함께 우리나라 독자층이 너무나 限定돼있다고 밝히면서 독자층을 넓히기위해서는 저자들의 자질향상도필요하지만 우리사회에 內在돼있는 여러가지 제약조건도 완화되어야한다고 말한다.
閔泳斌씨는 출판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적인 입장에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독서性向을 원하고있다. 가령 유네스코통계에 의할지라도 우리나라의 年평균도서구입비를 1백원으로 보았을때 일본이 1천7백원, 미국이 4천3백원이라는 사실은 이제 先進대열로 향해 나아가는 한국으로서는 대담한 쇼크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丁 薰 기자】

精神的건설 있어야 歷史의建設이 가능

金亨錫
<延世大교수·哲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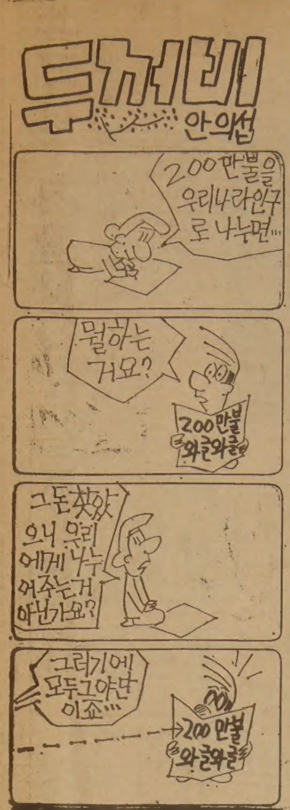
해방을 전후했을 때니까 벌써 40년전의 일이다.
그 당시 나는 일본서 대학생활을하고 있었다.
그 때만해도 일본인들의 독서열은 대단했다. 전철을 타고 있는 승객의 반이상이 모두 신문이나 책을 읽고있었다. 출퇴근 시간은 서울의 버스나 전철만큼 붐비곤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신문을읽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당시 일본에는 문고책이 붐을이루고 있었다. 아무리 어렵고 딱딱한 책이라도 초판에 2만부는 찍었다는 얘기였다. 세계문학전집 같은것은 여고생들의 애독물이 되어 있었고 상당히 수준이 높은 고전물들도 광범위하게 읽히고 있었다.
72년 여름이었다.
나는 미국서 돌아오는 길에 東京에 들렀다. 긴자 (銀座) 거리를 산책하다가 옛날 자주 다니던 책방 생각이 떠올랐다. 긴자 4가는 동경서도 제일가는 번화가이다. 그 주변에 이르렀을때, 옛날 여기에「교토」라는 서점이 있었고「교분칸」이라는 종교서적을 파는 책방이 있었는데 아직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텔리비전이 방마다 자리잡았고 다른 상품들이 쏟아져나오는 70년대였기 때문에 이런 번화가에 서점이 유지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외에도 그 서점들이 그대로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았더니 그 큰 서점이 완전히 초만원을 이루고 있는 것이었다. 토요일 오후였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서가앞에는 빈틈없이 줄을 지어서서 책을 읽고 있었고 그 윗자리들도 책을 빼든 젊은 층으로 붐비고 있었다.
비슷한 상황은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도 발견된다. 런던의 하이드공원에 들어서면 공원벤치에 앉아 신문이나 책을 읽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발견된다. 파리의 공원이나 길가의 옥외 코피숍에서도 많은 독서인구들을 보게된다. 독일 사람들의 가정을 방문해보면 어느 가정이나 그 가정분위기에 알맞는 독서물을 즐기고 있다.
우리는 2차세계대전직후의 독일과 일본이 얼마나 비참한 파괴를 겪었다는 사실을 잘알고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쟁이후에 경제나 사회적 성장이 가장 건전하고 빠르게 이룩된 나라들이 바로 그 독일과 일본이었던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여경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단축시킨다는 교훈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파괴되는 것은 물질적 건설이었지 정신적건설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해주는 교훈일 것이다. 그 정신적 기초위에 다시 쌓아올리는 물질적 건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경제와 정치적 성장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정신적 건설이 선행하지 않고는 역사의 건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 정신적 건설은 지적 축적이기때문에 교육과 독서의 혜택임을 부정할 수가 없다.
한때 일본의 모 평론가가 「텔리비전만 [illegible]을 써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일이 있었다. TV가 보급되기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독서를 게을리하며 읽고 생각하는 대신에 보고 느끼려는 안일한 취향의 노예가 된다는점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과거에 충분한 독서를 할 시기가 있었다. 그러므로 TV와같은 즉흥적인 오락물이 쏟아져 들어와도 지적인 축적은 가능했다. 또 TV가 들어온 후에도 TV와 맞먹을 정도의 독서를 지금도 계속하고있다. 그러므로 「TV망국론」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을것같다.
그러나 우리는 같은 현실이 못된다. 독서에 의한 정신적 유산이 없는 처지에 TV와 라디오가 국민전체의 시청각을 좌우해 버리고 반면 국민들은 모두가 독서와 사색을 멀리하고 창조적 정신력을 상실하기 쉽다. 우리야 말로「TV망국론」이 나올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거기 있는

책좋아한 獨·日 戰後쉽게부흥
TV로 보고느끼기만 한다면 몇世代의 不幸
知的자원만이 戰禍에도 健在

사색과 체계적인 이론을 갖추려는 정신적 노력이 고갈되면 그 사회의 장래는 크게 걱정스럽다.
사회의 정신적 구조도 그렇다. 영국같은 사회에서는 수준높은 정신적 지도자들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장래를 움직여가고있다. 국민들의 눈에서볼 때에는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이 지도자로 등단한다. 그들이 입법을 하며 행정을 책임맡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국회의원들이나 장관의 정신적 방향과 사회적 이념을 제시해주는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지성적 지도자들이다. 그들의 저서와 사상이 국회의원들과 장관들의 정신적 내용을 만들어 준다.
만일 지성적 지도자들의 창조적 노력이 없어지고 사회의 지도층들이 연구와 독서에 대한 정신적 결실을 갖추지 못하면서 국민들을 이끌어간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는가. 자신도모르는 바를 대중에게 가르치며 이끌어가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가는 어리석고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우리는 심한 지적 고갈과 정신적 불모성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한두해의 결과가 아니다. 몇 세대에 걸친 불행한 과거에 기인하고 있다.
왜 이렇게 쉽사리 물질문명과 향락적가치관에 몰입되어 버렸을까. 그것은 마치 균형을 잃은 새의 날개와 같아서 물질주의적 날개는 크게 자랐으나 정신적 날개는 자라지 못한 상태를 만들고 있기때문이다. 그 새는 날아갈 수도 없고 역사의 목적지에도 달하지 못한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정신적 날개와 물질적 날개의 균형을 찾는 일이다. 가치관의 조화로운균형이 깨진다면 우리는 어떤 결과도 얻을수가 없어진다.
그 해결책의 하나가 무엇인가. 정신적 풍부성을 위해 독서를 즐기며 독서를 의무화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자는 뜻이다. 독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독서가 안겨다주는 정신적 결과와 건설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와 같은 출판의 영세성과 도서의 빈약성을 안고는 도저히 문화적 뒷받침을 할 가능성은 엿보이지 않는다. 특히 우리와 같은 적은 민족으로 세계에 기여할수있는 길은 정치나 경제보다도 문화임은 더말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임무를 자각한다면 현재를 위해서는 물론 먼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문화적성장은 필수적이며 그 대중적 책임은 독서로부터 시작하지 않을수 없다.
물론 우리사회가 독서와 등을지고 있는 현실은 아니다. 그러나 선진국들에 비하면 여전히 독서를 하지않는 민족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것을 출판이나 독서의 빈약성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인정하고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어떤 직업과 사회적 위치에 머물고있든지 책을 가까이하며 독서를 기르는 생활을 시작해야 하겠다. 그것은 우리들 자신의 정신적 풍부성을 가져다주는 길인 동시에 지력으로 국가에 값있게 공헌하는 길도 되는 것이다.

책을 읽는 민족이 산다

진짜 일본음식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등등
~~~ MASA ~~~
JAPANESE RESTAURANT
195 RICHMOND. ST. W. (at Simcoe)
TORONTO
977-9519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Tel. 532-0111 Res. 259-5820

5주년 기념 세일
⊙전자 CASH REGISTER
⊙각종 전기전자 계산기
⊙각종타자기
⊙금고, 책상, 케비넷
김 성 수
교포경력(TORONTO 15년 경력)
분납가능

Grant Brown
새차및 81년도 데모카
특별세일(매출)
GMAC 이자율 14.2%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SAVE! SAVE!
집을 가지신 분들
당신의 히팅을 아껴 보세요.
겨울이 다가 옵니다.
PRE-WINTER SPECIAL
가스 난방 써비스합니다.
※오직 $30.—에 다음 4가지를 해드립니다.
● Vacuum Furnace & Vents
● Oil Furnace Motors
● Adjust Furnace Motors
● Clean Furnace Filter
FOR ONLY $30
연락해서 아끼세요.
☎ : 497-1841
MILLER REFRIGEATION
HEATING & AIR CONDITIONING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MODERN FURNITURE
ecosys
왜 에코시스 가구가 인기 있을까요?
◆그것은 최고급회사 제품들로서 물건이 특이하고
◆일반 가구점에서 볼수없는 차원높은 가구들이고
◆양심적으로 거래하며
◆사신후에 문제점을 책임지고
◆교포들 에게는 특별염가로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300 YONGE ST. TOR. (In Yonge-Eglinton Centre)
TEL. 486-0397 ,김만구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 883-9407
●MARKHAM PLACE ☎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



SUN-LIFE
생명보험. 각종보험
(B) 922-3111
(R) 439-8885
MRS. 김신명

護送人집 電話盜聽서 단서

"당신몫 넘긴다" 29만弗전달현장 덮쳐

200만弗사건

拘束된 갬베일(양탄자 상회사장) 배후서 資金대

犯人 現在5명확인 共犯계속 추적

【뉴욕12日=뉴욕支社】2백만달러 증발사건은 이미 구속된 현금호송회사 아머드 익스프레스(AEI)사의 호송원 프랭크·머레일과 거짓말 탐지기에서 양성반응을 보인뒤에 범행을 자백한 스티브·무이외에도 제3의 백인 호송원에 의해 저질러졌음이 FBI(미연방수사국)가 연방경찰국에 보낸 송치기록에서 밝혀졌다。

이로써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범인은 이들 3명외에 구속된 배후인물인 빈센트·갬베일(브라이튼비치양탄자상회주인)과 머레일의 19세 아들 앨폰스·머레일등 모두5명으로 확인됐으나 FBI는 이들외에도 수명의 배후공범이 더있을것이라는 단서를 잡고 수사를 계속 중이다。

FBI가 작성、미연방검찰국 브루클린지청의 사이안·재를로니 여자부검사에게 넘긴 송치기록(사건번호81-2051M)에 따르면 지난11월10일밤12시(뉴욕시간)가 넘어 AEI사직원 머레일과 무이 그리고 다른직원 1명이 리퍼블릭·내셔널·뱅크(RNB)로부터 받은 2백만달러가든 행낭을 케네디공항으로 싣고가던중 바꿔치기한것으로 밝혀졌다。

키1백90cm 40대백인으로 몸무게 1백90파운드의 거구인 이제3의호송원은 사건당일 흰바탕에 붉은색깔의링컨·컨티넨틀(뉴욕주 차량번호 609GUZ)을 타고 범행약속장소에가서 행낭을 바꿔치기 했다는 것。

FBI가 범행에 사용된 이 컨티넨틀차를 뉴욕 차량국에 확인한결과 소유주는 배후에서 자금을대준 빈센트·갬베일의 처 아나메·갬베일로 나타났다。

또 이 송치기록에서 밝혀진 범인들의 검거경위는 범인 머레일과 갬베일이 공범무이와 전화로 통화하는것을 도청녹음한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것으로 되어있다。

FBI는 사건발생후 사건당일 호송원인 머레일과 무이의집 전화번호를 우선찾아내고 외부와의 통화내용을 체크하기 시작했는데 지난6일하오1시30분 머레일과 갬베일이 공중전화로 집에있는무이에게 통화하는것을 도청녹음했다는것。

머레일은 이때 무이에게 『당신몫을 전달할 시간을 오늘하오 4시로하자』고 약속했다。

FBI는 이후 2시간반동안 계속이들을 미행、약속시간인 하오4시 머레일과 갬베일이 무이의 자동차에 현금29만6천달러가 든 쇼핑백을 싣는 현장을 덮쳐 현금을 압수했다。

그러나 증거가 불충분해 호송원들은 즉시 검거하지않았는데 지난9일밤9시 다시 머레일이 무이와의 통화에서 『파트너(공범)와 상의해서 네몫을 적게 준것이다』라고 말한것을 도청하는데 성공、이를 근거로 3명을 범인으로 검거하게됐다。

이 송치기록은▲범행동기▲범행장소와 방법및▲회수되지않은 1백70만달러의 행방등에 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으며 또 제3의AEI사동료호송원의 신원을 밝히지않고있어 범행전모에 대해서는 아직의문점이 많다。

한편 한 FBI수사관에의하면 범행에 사용된 링컨·컨티넨틀의 주인은 갬베일의처아나메·갬베일이지만 그여자가 범행에 가담한흔적은 아직없다。 그러나 머레일부자(父子)는 완전범죄를노리고 수개월전부터 예행연습을 철저하게 벌여온것으로 알려졌다。

머레일아들保釋

가족들 全財産담보로

【뉴욕12日=뉴욕支社】2백만달러증발사건과 관련、검거된3명의 범인을 심리했던 브루클린연방법원 시몬·체린판사는 11일 세범인에 대해 10~50만달러의 보석금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은 빈센트·갬베일이 50만달러、프랭크·머레일이 25만달러、그의 아들 앨폰스·머레일은 10만달러이다。

한편 뉴욕동부지방법원 크라인판사는 이날 머레일가족들의 전재산을 담보로 하고 아들 앨폰스·머레일만을 보석키로 결정하고 석방했다。

◇곤욕 200만弗 現送社 사옥 직원들이 2백만달러를 네다바이해 곤욕을치르고 있는 아머드 익스프레스사(뉴욕 맨해턴의 퀘스트 스트리트275) 외사옥。문이 굳게 닫혀있다。【AP=聯合】

大學登錄金 크게 引上될듯

大學院은 최고31·5%올라

82학년도 대학원 등록금이 최고 31·5%에서 10%까지 높게인상 책정돼 내년도 대학입학금이나 등록금도 크게 인상될것으로 보인다。

12일 각대학들에 따르면高麗大의 경우 대학원재학생들의 등록금이 인문사회계열은 52만7천원에서 69만3천원으로 31·5%、자연계열이 55만원에서 71만9천원으로 30·7%、의학계열 56만9천원에서 74만1천원으로 30·2% 각각 인상 책정됐다。

延世大는 일반대학원은 아직 결정짓지 못했으나 경영대학원등 특수대학원은 입학금을 59만원에서 69만원으로 16·9%、재학생의 등록금은 53만원에서 58만3천원으로 10%를 각각 인상했다。

漢陽大의 경우도 특수대학원은 신입생 16·9%、재학생 17·3%를 인상했고 일반대학원은 인문계 30·3%、자연계 29·5% 의학과는 29·1%를 각각 높여 책정했다。

이밖에 成大·外大등 각사립대학들도 15~20%씩 대학원등록금을 인상한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자들은 또 내년도 대학신입생이나 재학생의 등록금은 물가인상 요인에맞추어 인상해서 책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濠、한국기술移民 대폭허용을 合意

濠洲를 방문중인 千命基보사부장관은 12일 이안·메피濠洲이민성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국인 기술인력의 濠洲이주를 크게 늘리기로합의했다。

이날회담에서 千장관은 한국정부의 해외문호개방정책을 설명하고 한국인의 호주이주를 늘려줄것을 요청했으며 메피장관은 濠洲가 필요로하는 기술을가진 사람이면 수의제한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기술자나 기업의 영구적인이주는 환영하나 단기취업이나 집단적인 농업이주등은 국내사정을들어 난색을 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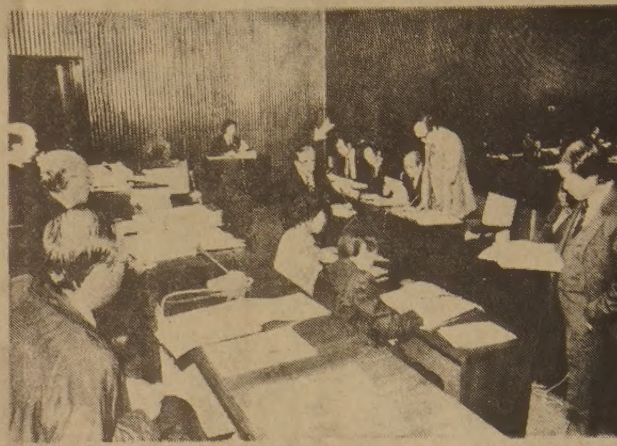
두장관은 또 두나라가 공동으로 기술인력을 양성、호주에 이주시키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협의하고 구체적인 직종과규모는 濠洲정부가 한국에 통보키로 했다。

千장관은 또 베켈라濠洲보건성장관과도 만나 濠洲의 의료제도와 사회보장제도등의 연구를 위한 유학생을 파견하는 문제도 협의했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861

부드러운公判 높아진 被告席

서울統合변호사회 모의로 열린 模範형사재판



◇나란히앉은 檢事와 피고 재판장석앞에 검사, 피고인(화살표), 변호사가나란히앉아 검사와 피고인은 대등한 소송당사자의 입장에서 공방전을 벌였다。

피고·檢事、당당히 陳述대결

"有罪확정까지 無罪원칙" 철저히

우리나라공판제도의 경직성을 바꾸게 권고하는 모범공판(모의)이 열렸다。 12일 상오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이것이 진정한 인권재판이다』는 첫느낌을 주는 재판이다。 일반법정 같은 위압적이고 딱딱한 분위기가 없는 형사 피고인의 인권옹호란측면이 유난히 돋보이는 방청석이다。

서울통합변호사회(회장 崔圭光)가 앞으로 우리나라 형사재판이 나아갈길을 제시한다는 취지아래 이날부터 공휴일인 13일하오까지 계속할 형사모의재판은 최근 서울통합변호사회가 마련、대법원에 건의한 「형사소송법규칙(시안)」에따라 진행돼 더욱 의미가 깊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사소송법만 있을뿐 재판절차를 자세히 규정한 규칙이 없어 관행에따라 형사공판이 진행되고있는실정。

이때문에 피고인의 인권은 거의 무시된채 공판이 진행되는게 사실이다。

이러한점을 감안、현재 대법원 송무제도 개선위원회는 형사소송법 규칙 제정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통합변호사회가 건의한 규칙시안이나 그에따라 진행된 모의재판이 많은 참고가 될것으로 보여 피고인 인권옹호에 밝은빛을 던져준것으로 법조계는 보고있다。

「33종합병원사건」이란이름이 붙은 이번 모의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한무면허의사의 의료과실사건。

피고인 金仁燮씨(50)는 이북출신 의사로 월남후 다시 시험을치러 면허를 땄으나 얼마후 시험부정이 드러나 면허가 취소된 사람。

金씨는 어느날 알고지내던 33병원수련의의 당직근무를 대신하던중 허약한 산모를받아 간호원과함께 순산은 시켰으나 산모의출혈이심했다。

金씨는 자궁경관이상으로 알고 수술했으나 증상이 더심해 산부인과과장에게연락、재수술을받게하다。 그러나산모는 결국 숨졌고 金씨와 과장、간호원등3명은 보건범죄단속에관한 법률위반및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열린것。

모의재판은 재판정의 구조부터 달랐다。 재판관앞에 검사、피고인、변호인이 나란히 앉아 검사와 피고인은 대등한 소송당사자로서 열띤공방전을 벌였고 특히 피고인은 변호인과 협의해 검사신문에 답했다。

피고인이 검사석보다 한단낮은 자리에 앉아 심리적으로 위축돼버리는 실제재판모습과는 여러모로 달랐다。

또 재판장은 개정직후 『피고인들은 모든 신문에 대해 침묵을 지킬수있고 진술을거부할수있으며 국선변호인을 선임할수있다』고 고지하는 것도 역시 실제재판에서는못보던 모습。

재판과정도 수사기록위주가 아니라 공판정에서의 논고와 변론을 통해 재판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실천해 보였다。

이밖에도 재판부가 검사의 기소내용에 대해 피고인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봉쇄하지않고 충분히 주는것도 실제 재판모습과는 다른점。

피고인이 검사신문에 당당하게 맞서 자기변호를 하는 만큼 피고인측 증인들도 검사반대신문에 대해 위축되지 않고 여유있게 답변했다。

한마디로『피고인은 유죄확정판결이 있을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대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는 공판이었다。

방청인들도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이나 피고인의 항변을 들으며 마음을 졸이는것보다는 느긋한 자세로 방청한다。

재판결과 金씨는 업무상과실치사부분은 유죄선고를 받았으나보건범죄단속에관한법률위반부분은『영리목적으로 진료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역시 『피고인이 자신의 무죄를 입증해야하는게 아니라 검사가 피고인이 유죄라는것을 입증해야한다』는 현대형사소송법상의 상식적인 결론。

과장역시『환자의 수술동의를 얻기위해 시간이 경과한것은 의사에게 책임추궁할 수없으며 특수한 수술을 하지않았다는 공소사실 부분도 피고인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의료관행을 준수했으므로 책임을 물을수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모의재판의 배역은 재판부판사3명과 변호사·검사·증인은 물론 피고인들까지도 통합변호사회소속 변호사들이 맡아 「열연」해서 이채였다。【崔秉稷기자】

불량漫畫팔아 첫拘束

경찰、일제團束 貸與한 3백17가게 摘發

서울시경은 12일 어린이들에게 불량만화를 대여해준 서울시내 만화가게 3백17개소를 적발、그중 서울鍾路區세운상가 가동3?3호 대우서점주인 李大雨씨(27)를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4명은 형사입건했다。

구속된 李씨는 청소년들에게 불량만화 30권을 관매하다 적발됐는데 불량만화를대여、또는 관매하다 구속되기는 지난79년 미성년자보호법이 개정된후 처음이다。

서울시경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불량만화를 대여하는 업소는 물론 이를 제조판매하는 업자들도 강력히 단속키로했다。

年上情婦망치殺人

극약自殺기도重態

12일 하오1시30분께 서울 城東區聖水洞2街 272의38 호성여관 1층내실에서 여관주인 金明愛씨(38·여)가 연하의 정부 石明達씨(35·공장장·서울城東區聖水洞2街 16의50)의 얼굴을 망치로 때리고 네타이로 목졸라 숨지게한뒤 자신도 극약을마시고 신음중인 것을 石씨의 동료 [illegible]씨(23·서울城東區[illegible]洞 322의10)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金씨에 의하면 이날石씨가 출근하지않아 평소 자주다니던 이여관으로찾아가 잠긴문을부수고 들어가보니 石씨가 숨져있고 金씨는 신음중이었는데 『여자를 농락하지말라』는 내용의金씨의낙서가 남아있었다。

金씨는 전남편과 이혼、혼자살면서 지난2월 여관을경영할때부터 인근 모공작소 공장장인 石씨와 자주정을통해왔는데 최근 石씨의부인

流星의 賊

<259>

李炳注作 李友範畫

感傷興國月 ㉕

이어 가나이는 공수(攻守) 양면에 걸쳐 가장 요긴한 검법、몇개의 형을 직접 시범하며 새벽에 이르렀다。 먼동이 틀무렵 가나이는 칼날에 묻은 이슬을 소매로 닦고 칼을 칼집에 넣으며 말했다。

『이로써 내가 60평생 닦아 이룩한 신풍류(神風流)의 극의(極意)를 전부 전수한 셈으로 되었읍니다。 천재(天才)를 가진 귀하께선 쉽게 부월(斧鉞)을 가하셔서 취사(取捨)에 융통무애하리라고 믿읍니다』

홍계남은 왜인(倭人)의 예법대로 가나이에게 정중하게 인사했다。

계남은 계속 객관에 머물면서 야심(夜深)을 이용하여 혼자 가나이의 시범(示範)을 익혔다。 그리고 비로소 일인의 검술엔 그들 나름대로의 정진(精進)에 따른 묘법(妙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그 예의하나가 보법(步法)이 었다。 중국의 무술도 보법을 중요시하고있지만 일본 검술의 보법 중시는 중국의 유가 아니었다。 이를테면 검은 팔과 손으로 쓰는것이 아니라 다리와 발로써 쓰는 것이라고 할 만큼 일본의 보법은 신기했다。

어느날 당상군관 황진과 마주 친 자리에서 홍계남이 『일본에서 배울것이 많더란』고 하며 검술을 예로 들었다。

『개에서도 소에서도 배울것이 있는데 왜인에게서 배울것이 왜 없겠는가。 창법 하나만은 놈들로부터 나도 배우고 싶은게 있는데 놈들이 거절하더군。 그러나 검술 따위는 왜인에게서 배울 게 없을 것이오』

하는 황진의 대답이었다。

계남이 그렇지 않다고 우겼다。

그러자 옆에 있던 차천락이

『홍공이 근자 왜인 검술가로부터 뭔가 배운 것이 있는 모양인데 황공 앞에서 한번 그 가락을 보여줌이 어떨까』

하고 말을 끼었다。

『그것 한번 보고 싶군。 홍공、뜰로 내려갑시다』

하고 황진이 왜인들이 갖다 둔 목도(木刀) 하나를 집어들고 뜰로 내려갔다。 하는 수 없이 계남도 목도를 들고 내려갔다。 황진으로 말하면 갖가지 무술、특히 검술가로선 당대에 추수자(追隨者)가 있을 수 없다는 정도로 이름이 나 있는 명사였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겠읍니다』

가볍게 읍하곤 계남은 목도를 오른 팔에 들고 선 황진 앞에 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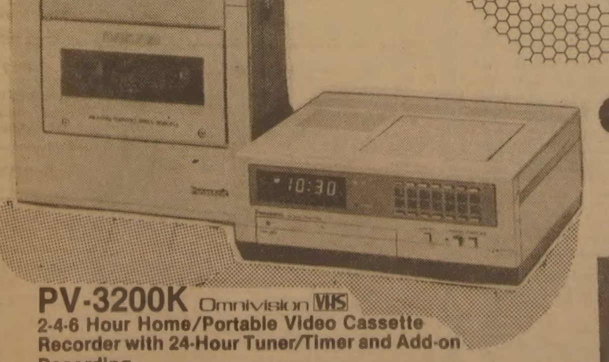
『홍공、한번 쳐들어와보슈』

계남은 목도를 수평으로 받들고 일본의 보법그대로 한치 한치씩 소리없이 전진했다。 황진이 계남의 목도 끝을보고 있더니 돌연 얼굴에 홍조를 띠었다。 계남이 계속 간격을 좁혀 들어가자 황진은 뒤로 한발짝 물러서는듯 하더니 쥐고있던 목도를 멀리 던져버리며 일갈했다。

『어디서 그런 요사스런 검술을 배워가지고 어른을 현혹하려고 하는가。 검은 검의 도를 따라야하는 법여』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않고 바깥으로 휭 나가버렸다。 주위에있던 사람들은 그 장면의 의미를 몰라 서로들의 얼굴을 쳐다보기만했다。 그러나 계남은 알았다。 「부동의 동」이 풍겨내는 이양한 위력에 황진은 자기도 모르게 당황한 것이라고。

"비데오 테프 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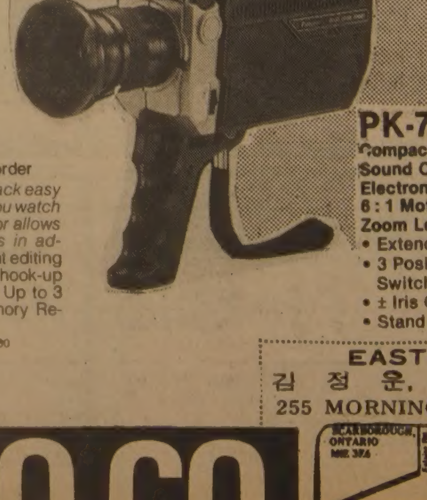


PV-3200K Omnivision VHS
2-4-6 Hour Home/Portable Video Cassette Recorder with 24-Hour Tuner/Timer and Add-on Recording
Panasonic

SANYO
Makes Life's Good Things... Better
Video Cassette Record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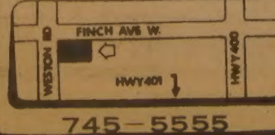
VTC9100 Video Cassette Recorder
Sanyo makes video recording or playback easy and inexpensive. Built in TV tuner lets you watch one program while recording another or allows unattended recording up to 24 hours in advance. Remote Pause Control for instant editing • Lighted Channel indicators • Easy TV hook-up • One touch Recording or Playback • Up to 3 hours Recording or Playback* • Memory Rewind • Automatic Shut Off.
*Note: L-830 tape not recommended for use with VTC9100
$ 799.00

Panasonic



PK-700AK
Compact Color Video Sound Camera with Electronic Viewfinder and 6 : 1 Motorized 1-Speed Zoom Lens
• Extendible Boom Mike
• 3 Position Color Temp. Switch.
• ± Iris Control
• Stand By Swi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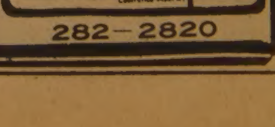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中共정권 內紛심각
日紙보도 鄧小平·葉劍英派 대립격화

【東京11日=聯】최근 중공에서 발생한 여러가지사태로 보아 현재의 중공정권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日本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현재 개최중인 제5기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전체회의에서 정치문제에 관한 토의가 일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문제만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는것으로 미루어 중공지도층내에 심각한 정치적 대립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신문은 中共지도층내의 정치적 대립은 국가주석직부활과 관련하여 빚어지고있는 것으로 믿어진다고 말하고 이같은 정치적대립은 부주석 鄧小平파와 부주석이자 全人代상무위원장인 葉劍英파사이에 잠치된 시한폭탄과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신문은 이어 4백50만에 이르는 人民解放軍도 軍지도자들을 권력상층부에서 제외시키려고하는 주석 胡耀邦에 대해 큰 불만을 품고있다고 말했다.

中共군사사절단 訪美지연
對대만 武器판매計劃으로

【워싱턴12日AP=聯】오래전부터 예상돼온 중공 고위군사사절단의 미국방문은 현재 유보상태에 있으며 당장 실현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미국의 한 고위관리가 11일 밝혔다.

이 관리는 당초 지난 9월로 예정됐던 중공군부총참모장의 워싱턴방문이 지연된주요인이 미국의 對臺灣무기판매계획 미확정과 중공의군사비지출삭감등이라고 말했다.

이 관리는 중공이 기술이전이나 군사장비 판매문제를 논의하려할 경우 부총참모장이나 그밖의 적절한 관리를 보내줄 것을 요청한바 있으나 현재로서는 누가 올지 아는바 없다고 말했다.

佛, 對리비아 關係正常化추진
外務省공식聲明 "國際테러勢力아니다"

【파리11日AP=聯】프랑스정부는 리비아 암살단의 美잠입설을 둘러싸고 美·리비아관계가 한층 악화되고있는가운데 11일 이제는 리비아를 국제파괴세력으로 생각하지 않으며 리비아정부와의 관계정상화도 점진적으로 추진할 의사가있다고 선언했다.

프랑스 외무성은이날 공식성명을발표,『프랑스정부는 리비아정부의 태도가 더이상 외부불안을 야기시키는 세력의하나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밝히고『프랑스는 전신적으로 무아마르·가다피정부와 정상관계복귀를 시도할것』이라고말했다.

이에앞서클로드·셰이송프랑스외상은 지난 10일 브뤼셀에서『리비아를 고립시키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외무성은 11일 성명에서 과거의 일부 리비아정책이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몇몇 이웃나라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던점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익명을요구한 한외무성대변인은『그것은 과거의 일이고 이제 리비아는 변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한 프랑스의 입장이 암살단의 미국내 잠입설과 관련한 미국의 對리비아 비난을 노골적으로 일축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곳 관측통들은 프랑스의 새로운 對리비아정책선언이 前佛領차드에서 리비아軍 1만명이 최근 철수한 것과 관련이 있는것으로 믿고있다.

아르헨 새大統領에 갈티에리陸參總長

갈티에리大統領

【부에노스아이레스11日AP=聯】아르헨티나 집권3군사혁명의회는 11일 로베르토·비올라 현 대통령을 8개월만에 해임하고 후임에 레오폴도·갈티에리 육군참모총장(55)을 임명했다.

육·해·공 3군참모총장으로 이뤄진 혁명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비올라의 해임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채 갈티에리 중장이 오는22일 대통령에 정식 취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날부터 신임 대통령취임일까지는 현재 내무장관인 카를로스·라코스테 해군제독이 과도정부 대통령및 내상직을 겸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비아에 居住 美國人들 "生活안전" 撤收권고 묵살

【트리폴리10日AP=聯】리비아에 거주하고있는 미국인들은 레이건 대통령의 자진철수권고에도 불구, 리비아에서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느끼고있으며 일부 미국인들은 리비아가 미국에 암살단을 파견했다는 보도를 비웃고 있는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13주 리비아거주 미국인들을 상대로한 조사에 따르면 트리폴리석유회사근무자자녀들을 위한 학교에 근무하는 폴·바렌씨(27)는『나와내 아내는 완전한 안전을 느끼고있으며 우리는 미국에서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있다』고 말했다.

텍사스출신의 한 석유회사간부도『무아마르·카다피리비아국가원수가 그렇게까지 미치진 않았으며 만일 누군가가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하고 그저격범이 리비아인으로 밝혀지면 바로 그다음날 미6함대가 리비아를 칠것』이라고말해 암살단파견보도에 회의를 표시했다.

인터뷰에 응한 다른 미국인들도 대체로 리비아가 받게될 보복조치를 이유로들어 리비아의 암살단파견설에 의문을 나타냈다.

현재 리비아에는 주로 석유회사에 근무하는 약1천5백명의 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駐美蘇대사관의 盜聽안테나 駐美소련대사관의 옥상에 설치된 고성능 안테나. 美國정부관리들의 전화를 도청하고 있는것으로 보이는 이안테나에 손을 쓸수없는 美國정부는 그대책으로 공무원들의 전화마다『이전화는 안전하지못함』이라는 표지를 붙여 대화에 조심하도록 상기시키고있다. 【워싱턴12日UPI特約=聯】

신형核배치 支持
나토外相회의폐막, 反核운동경고

【브뤼셀11日AP·UPI=聯】15개국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외상들은 11일 서방의 일방적인 核軍縮이 소련의 압도적인 군사적우위만을 초래할것이라는 이유를들어 서구의 반핵운동을 경고하는한편 미·소군축회담이 실패할 경우에 신형 중거리미사일을 서구에 배치하겠다는 레이건미대통령의 제의를 만장일치로 지지하고 이틀간의 연례회의를 끝냈다.

나토외상들은 이날 브뤼셀의 나토본부에서 발표한 폐막공동성명에서 주요 서구의 반전청년들을 가리켜 채택한 메시지를 통해『서방의 일방적인 핵무기감축만으로는 전쟁의 위협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일방적 핵감축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소련에 막대한 군사적 이익을 주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성명은 유럽배치核미사일감축을 위한 제네바 미·소군축회담개최를 환영하면서 미·소가 핵무기감축에 합의하지 못할경우 미신형미사일의 서구배치를 추진하겠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제의가『솔직하고 공정한』것이라고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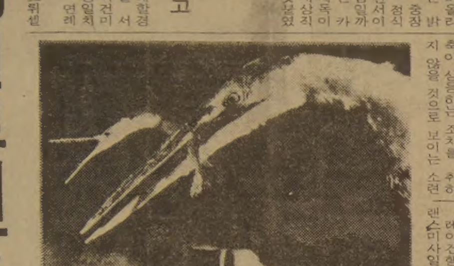
油價 20~70센트引下
OPEC새해부터 質따라差等가격

【아부다비11日AP·AP=聯】석유수출국기구(OPEC)는 11일 유질에따른 차등유가제를 실시키로결정하고 페르시아만산 원유가격을 오는 1월1일을기해 현 유가수준에서 20내지 70센트씩 인하키로 결정했다.

OPEC석유상들은 아부다비에서 열린 OPEC각료회의에서 이같은 유가인하결정에 합의했으나 미석유회사들에대해 공동 제재조치를취하자고한 리비아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라져 합의를 보지못했다.

마나·오타이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석유상은 이날 OPEC회의소식통들을 인용, 현재 배럴당 34달러인 사우디아라비아산 기준유가는 변동이 없다고 말해 이번 결정이 유질등급이 있는 원유에 적용될것임을 분명히 했다.

OPEC의장인 오타이바 석유상은 UAE및 카타르산 원유는 배럴당 20센트, 알제리산 중질유는 현행37.5달러에서 37달러로 50센트씩 각각 인하조정됐으며 일부 유가는 유질에 따라 70센트까지 인하됐다고 밝혔다.



◇왜가리의 사냥솜씨 동갈치 한마리가 왜가리의 부리에 낀채 한입에 물리자 역시 입가득 벌려, 이에 항의하고 있다. 【홈스테드(美플로리다州航空) AP=聯】

美과학자들이 開發 砲에장치 中性子彈

【워싱턴12日UPI=聯】미과학자들은 1백55㎜포탄에 사용할 중성자탄두를 개발했으나 그 생산문제는 아직 계류중이라고 관리들과 국방성 소식통들이 11일 전했다.

레이건행정부는 지난 8월 렌스미사일과 8인치포에 사용할 중성자탄두를 생산할것이라고 발표하고 이는 미국내에만 저장될것이며 유럽에는 배치되지 않을것이라고 말한바있다.

印度 殺人폭풍 수천명이 死亡

【뉴델리11日AP=聯】방글라데시의 일부지역과 인도에 10일밤과 11일아침 시속1백52㎞급의 폭풍이 내습, 최소한 수천명의 인명을 앗아가고 2백만명의 이재민을 냈다고 인도의 UNI통신과 PTI통신이 보도했다.

PTI통신은 이 폭풍이 거센파도를 동반, 대카서방2백70㎞ 떨어진 방글라데시의 두브라차르섬에서만 7천명의 어부들이 실종되고 섬전체가 격랑에 침수됐다고 전했다.

國際法·外交에 뛰어난 전형적 유엔通
새 유엔總長 쿠에야르

11일 차기 유엔사무총장으로 지명된 하비에르·페레스·쿠에야르씨는 국제법과 복잡한 유엔문제들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전형적인 유엔通. 대학교수출신인 쿠에야르씨는『국가와 정부승인』,『외교법』등 두권의 저서가 있는데 페루외교연구원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특히 駐유엔韓國대사와 아주 친밀한 사이로 앞으로 유엔을 통한 한국문제해결에 쿠에야르씨가 해낼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79년2월부터 81년5월까지 유엔정치담당사무차장으로 재직하는동안 아프가니스탄문제등 미묘한 외교임무를 많이 침착하게 수행했다.

아프가니스탄정부와 파키스탄과의 간접대화를 유도한 사람도 바로 쿠에야르씨다.

외교능력이 뛰어나서 74년 터키가 키프로스를 침공했을때 유엔키프로스문제 특별대표로 임명돼 키프로스의 그리스系와 터키系주민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았다. 지난5월 유엔사무차장을 그만둔후 본국에 돌아와 벨라운데 대통령에 의해 브라질 대사로 임명되었다.

1920년1월19일 리마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국제법을 전공, 런던·파리·볼리비아·브라질·스위스등지에서 외교관생활을 했었다. 유엔사무총장으로서 그의 연봉은 15만8천3백40달러. 여기에 연간 2만2천5백달러의 수당이 붙는다. 【유엔本部=金泰雄특파원】

메아리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 비밀투표끝에 하비에르·페레스·데·쿠에야르라는 긴 이름의 전 유엔주재 페루대사를 다음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했다는 소식이다.

올해 안으로 임기가 끝나는 쿠르트·발트하임 현 사무총장의 뒤를 이을 임기 5년의 새사무총장이 남미 서안의 공화국으로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 이은 그곳 제3의 대국에서 태어나기 까지에는 우여곡절도 많았다.

현 발트하임총장은 3차의 연임을 꾀했으나 중공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발트하임총장의 경쟁상대인 살림 탄자니아외상은 미국의 거부권행사로 후보포기를 선언하여 새총장은 어부지리를얻어 선출된 셈이다.

누구나 아는것처럼 유엔에는 6개의주요기관이 있다.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사무국이다.

유엔사무총장은 사무국의 장으로서 유엔의 행정직원의 우두머리 이자 또 중요한 정치적인 책임도 아울러 지게 되어 있으며 특히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사항을 유엔에 제기하는 책무를 갖고 있어 그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

새 유엔事務總長

오늘날 세계의 현실은 국제사회가 차츰 조직화 되어가고 있는 추세아래 놓여 있다. 그 조직화는 두가지 제가끔, 다른 분야에서 진행중에 있다.

하나는 인류의 복지증진에 관한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류가 생존하기위한 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면이다.

국제사회가 유엔을 만들어서 유지하려는것도 오로지 평화와 번영을 증진시키려는 이상때문이다.

그러나 그와같은 이상의 실현여부는 각정부들이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에 대해서 제가끔의 국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바탕으로 대할것인가, 아니면 인류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헌에 힘을 기울일 것인가에 깊이 상관된다.

새로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쿠에야르씨가 앞으로 5년간 국제사회를 위해서 해야할 일은 너무나 많고 그의 선출에대한 우리의 관심도 결코 적다할수는 없다.

서울大에 體育博士 과정
내년부터 定員5명으로

서울大가 개교이후 처음으로 체육학 박사과정을 82년부터 신설, 학생을 모집한다.

박사과정 모집정원은 5명이다.

국내대학에서 체육학박사과정이 생긴것은 81년 慶熙大가 처음이었고 서울大가 2번째가 된다.

체육학 박사과정을 신설하는 것은 88년 서울 올림픽 유치와 관련, 체육학의 연구가 필요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海外토픽

예수에 5만弗遺産
★再臨하면 드리라고

영국의 한 독실한 기독교신자가 재림할『예수 그리스도』앞으로 5만7천달러의 유산을 남기고 갔으나 유언자의 친척들이 유산상속권을 주장, 미묘한 법정논쟁이 진행중.

포츠머드에 살았던 어니스트·디위드라는 노인은 1년전 사망당시 예수가 재림하면 그의 유산을 상속하도록 유언.

그러나 수탁을받은 유언집행자는 친척들의 유산분배압력에 견디다못해 런던고등법원에 기발한 제안을 승인하도록 제소.【런던=AP】

메뚜기떼 퇴치개발
★濠서 위성利用

호주는 처음으로 랜드새트 인공위성시설을 이용, 메뚜기떼의 피해를 줄이고 있다고.

호주메뚜기피해대책위원회는 호주의 알리스·스프링스에있는 랜드새트 인공위성수신소시설을 이용한 공중사진촬영으로 메뚜기떼 번식처를 찾아 살충제를 뿌려 큰효과를 보고있다고 발표.

이 위원회의 필·신몬스박사는 만일 지난여름 인공위성시설을 이용하여 메뚜기떼를 박멸하지 못했더라면 뉴사우드·웨일즈, 빅토리아및사우드·오스트리아주 일원에 메뚜기떼가 만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멜번=AP】

알리, 판정패

【나소(바하마)12日=聯】프로복싱 세계헤비급 타이틀을 4번째 차지하기위해 링에 복귀한 무하마드·알리(39)는 12일하오(한국시간) 이곳 퀸엘리자베스 스포츠센터서 벌어진 트레버·버빅(28·카나다 헤비급 챔피언)과의 10회전 경기서 3-0으로 판정패, 재기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3심판의 판정내용을 보면 99-94, 99-94, 97-94로 심판모두 버빅우세였으며 AP통신도 96-94로 버빅의 우세를 기록했다.

챈들러 타이틀防禦
무라따 13回KO패

【아틀랜틱시티11日AP=聯】美國의 제프·챈들러(25)는 10일 아틀랜틱시티에서 열린 WBA밴텀급타이틀전에서 도전자인 日本의 무라따·에이지로(村田英次郎)를 13회 KO로 누르고 타이틀방어에 성공했다.

심장병어린이施術
뉴욕聖빈센트病院 1월까지 21명出國

【金浦=聯】우리나라의 심장병 [illegible] 뉴욕성빈센트병원에서 무료수술을 받을수있게 [illegible]

카엘라수녀(41)의 주선과 미국·뉴욕로터리클럽및 서울로터리클럽의 적극적인 뒷받침에의해 혜택을 받게된것인데 가정사정때문에 수술을 받지못하는 어린이환자중 서울지역 어린이 7~9명과 釜山·慶南지역 15~17명등 24명이 이달말께부터 내년1월까지 모두 美國으로 건너갈 예정이다.

金浣·安海淑 혼합複式 결승진출
핀란드오픈卓球 中共2對0連破

【헬싱키=李廷元특파원】한국탁구대표팀의金浣·安海淑혼합복식조는 12일(한국시간) 헬싱키스포츠홀에서 벌어진 제1회 핀란드오픈탁구대회에서 처음 中共조를 연파하고 개인전 혼합복식 결승전에 진출했다. 金浣·安海淑조는 이날 3회전에서 中共의 첸·신·화―陳莉莉조를 2―0으로, 준결승에서 역시 中共의 쟝·쟈·량―陳浩玲조를 2―0으로 완파했다.

女子단체전선 3위차지

金浣·安海淑조는 결승전에서 中共의 范長茂·謝小燕조와 대결하게된다. 范長茂는 금년18세의 신예로 지난8월 東京서열린 국제청소년대회서 남자부단식을 제패한 강자다.

한편 여자단체준결승전에 진출했던 한국여자 A·B팀은 모두 中共팀에 패배, 3위에 그쳤다. 결승전서는 中共여자팀끼리 대결하게되었다.

◇첫날전적

▲여단체준결승
中共B 3―2 한국A
中共A 3―1 한국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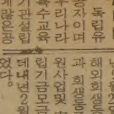
▲남단체 2회전
이탈리아 3―0 한국A

▲혼합복식준결승
金浣·安海淑 2―0 쟝자량·陳浩玲

▲동준준결승
金浣·安海淑 2―0 첸신화·陳莉莉

◇스매싱 猛攻 여자주니어 단식에 출전한 河美容(안양여고)이 2회전서 尹正浴(이일여고)에 스매싱공격을 퍼붓고있다.

獨立有功 李永植목사 사이판서 心臟마비



재단법인 조정관인호지여사(72)와 부산메리놀병원 부속知山간호전문대학 이사장, 학교법인 영광학원 이사장 李永植목사가 지난8일 새벽3시30분 남태평양 사이판섬에서 심장마비로 운명했다고 유족들이 11일 밝혔다. 향년 87세인 이목사는 지난9월27일 출국, 사이판에서 해외희생동포 유해 봉환사업과 희생동포 2세들에대한후원사업및 安重根의사 동상건립기금모금활동등을 펴왔는데 내년2월 귀국할 예정이었다.

독립유공자이며 우리나라 특수교육 기관설립 [illegible]

도박主婦5명令狀
하루판돈1~2백만원 포커노름

서울江南경찰서는 12일 金淑子씨(43·여·서울城東區廣壯洞 워커힐아파트 24동1 0 2호), 徐慶子씨(38·여·서울江南區狎鷗亭洞 한양아파트 22동1101호)등 도박주부5명과 이들을 모아 도박장을 연 金光天씨(서울道峰區水踰3洞392)등2명을 상습도박및 도박장개장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개장주 金光山씨(40·서울東大門區典農洞)를 수배하는한편 판돈 1백21만원을 압수했다.

종교서관
535-1920
●기독교및 일반서적
★ 일반서적 다량입하
월~토 : 오전10 : 30~오후7시
714 BLOOR ST. W.

교 회 안 내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가나안교회	이정준	주일오후 1 : 30	1428 Royal York Rd. (at Eglinton Av.W.)	244-2301 742-7010
갈보리교회	안병한	주일오전 7 : 30 오후 2 : 00 영어설교 오후 1 : 00 금요저녁 9 : 00	3817 Lawrence Ave.E.	755-7979 431-3635
고신장로교회	최사철	오후예배 1 : 00 성경공부 2 : 30	148 Thornridge Dr Thornhill	241-4546
대한교회	강근환	주일오후 1 : 30	3819 Bloor St.W.	741-5411
순복음교회	이필주	주일오후 2 : 00 금요기도회8 : 00	1 King St. Weston	881-7162 247-9577
동부한인장로	홍순관	대예배 오전11시 영어예배 12 : 30분	251 Christie St.	530-1142 530-1143
딕시한인장로	차주성	주일새벽 6 : 30 주일낮 12 : 00 주일오후 2 : 00	3065 Cawthra Rd. 미시사가	279-4356 279-6388
런던제일교회	장희선	주일낮 11시 주일찬양예배7시 수요예배 8시 주일새벽기도회6시	135 Briscoe st. E.	686-6302 전화선교 439-6331
런던한인교회	신용규	주일대예배11 : 00 주일저녁예배7 : 30 금요기도 밤10시	530 Topping Lane London	473-5257 686-0224
성도교회	김용진, 정춘수	주일오후1시30분	87 Elmhurst Dr.	745-7370
반석교회	양세주	주일오후 1 : 30 성경공부 2 : 40 토요기도 밤7시	2840 Weston Rd. at Albion	746-5010
벧엘교회	최상봉	수요저녁 7 : 00 주일오후 1시	395 Old Yonge St.	498-2967 221-1382
빌라델비아 장로	김경진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00	7 Gretna Ave. (Victoria Pk. & Lawrence)	281-5706
새예루살렘교회	김승환	주일오후 2시 중고등 영어 오후1시 수요새벽5시30분 금요저녁7시30분	5 Grenoble Dr. Don mills	429-1430 429-2685
새한장로교회	김상호	주일오후 2 : 00 토요오전 7 : 00	105 Wilson Ave.	482-4577 633-8132
서머나감리교회	박준하 김옥희	주일오후 2 : 00 수요예배 7 : 30	675 Sheppard Av.E.	751-3611 752-9860
선교교회	안상엽	주일 낮 1 : 00 저녁 7 : 00	1 Greenland Rd. (Donm ills)	444-8002 444-4011 (기쁜소리)
대한수도원	조권사	철야기도 금 밤11시 평일기도 오후2시 토요집회 오후2시 또는 수시	100 Lawlor Ave. Tor.	698-5363

교회명	담임목사	예배시간	주소	전화
성산교회	계화삼	주일오후 1 : 30 4 : 00 수요오후 7 : 30	65 Mayall Ave. Downsview	977-5202
순복음카나다	조이식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1030 Albion Rd.	745-3884 743-4813
에덴침례교회	정태진	주일오후 2 : 00	1272 Weston Rd.	242-4964
영락교회	김재광	주일오후 1 : 30 수요저녁 7 : 30 금요저녁10 : 30	126 O'conner Dr. at Pape Ave.	423-8400 423-9880
오순절장로교회	장세택	주일오전11 : 00 금요오후 8 : 00 주일 오후 4:00	754 Indian Rd.	762-1495
임마누엘교회	조창환	수요저녁7 : 30 일요오후2 : 30	63 Dunblaine	488-4141
요한웨슬레 감리교회	여용순	주일오후 1 : 30 금요예배 7 : 30	2385 Warden Ave.	444-8343 497-7122
제일장로교회	김용출	주일오후 1 : 30 금요오후 7 : 30	963 Pharmacy Ave.	755-9766 755-1528
제7일안식일	박형종	금요오후 7 : 30 토요오전 9 : 30 11 : 00	255 Finch Ave. W.	630-4284
중앙장로교회	정관일	주일오후 1 : 00 성경공부 2 : 20 금요오후 8 : 00	502 Bathurst	전화설교 961-8361
천주교회	고충욱	주일오후 1 : 00 토요오후 5 : 30	83 Power St. Tor.	863-0415
침례교회	홍신용	주일오후 2 : 00 금요오후 8 : 00	720 Ossington Ave.	531-7604
충현교회	박경남	주일오후 2 : 00 주일오후 4 : 30 금요집회 밤8시	240 Manor Rd.	281-7772 245-1687
키치너·워터루 한인교회		주일오후 1 : 30	54 Queen St.N. Kitchener	(519) 579-1819
펜티코스탈교회	심상대	주일오후 1 : 00 (영어예배) 주일오후 2 : 00 (대예배)	300 Queen's Dr.Tor.	223-1914
한인교회	유재신	주일오전11 : 00 낮12 : 30	353 Sherbourne St.	922-3863
한인장로교회	박희민	주일오전11 : 00 수요오후 7 : 30	1183 Davenport Rd.	535-6864 532-2121
해밀턴연합	김낙중	성경공부 2 : 30 예배 3 : 00 주일학교 3 : 00	1570 Main. W. Hamilton	627-4329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한)및 침술·
물리치료, •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535-3520, 630-8491

구 인

매니저구함. 주매상 : $6,000이상인 성업중인 그로서리 스토아임. 약간의 보증금 요함.
☎: 431-4474, 439-4885(MR. 김)

웨이터 1명, 웨이트레스 1명, 주방헬퍼 1명 구함.
628 BLOOQ ST. W.

애기 봐주실분 구함(입주 또는 출퇴근해서)
☎: 783-0683
536-5914(밤9시이후)Mrs. 하

파타임 헬퍼구함
3261 DUNDAS ST. W.
☎: 769-5956

● 도넛츠 가게에서 일하실 여자분 구함
아침 8시~오후4시(풀타임)
토, 일 아침8시~오후4시(파트타임)
●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함
☎: 531-2689

● 오토바디샾에서 일할 경력있는 사람구함
좋은 보수와 우대함(남자 2~3명)
● 사무일보실 여자분 구함. (1명)
B)533-8507~8
R)439-6548(Mr. 리)

밤11시~오전7시(일~목요일)
도낫샾에서 일할 여자분 구함
☎: 482-4088

HELP WANTED
일본 음식점에 웨이트레스와 키친헬퍼구함.
☎: 977-9519 195 RICHMOND ST. W.
일본식당마사

RESTAURANT동업자 구함
BEER + WINE 라이센스가 있고 새 PLAZA내에 SETUP된 전망이 좋은 고급 식당입니다.
꼭 관심이 있는 분은
281-8218(오후2시~5시 사이만)
로 문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매매및 양도

생선가게 매매 : ROYAL YORK & QUEENS WAY
259-1585의 JOE, OR
364-3883의 FRANK에게 연락요.

작은 그로서리 스토아 가정형편상 매매
이층방 포함 렌트 : $650
☎: 656-7753

밀크스토아 급매(오타와)
주매상 : $5700
매네저 혹은 후렌차이스도 가능함.
☎: 624-5817

고급코트를 만들수 있는 친칠라 사육을 원하시는분
소자본으로 지하실에서 사육할 수 있음.
☎: 859-4366

몬트리얼이나 퀘벡에 있는 빌딩이나 회사를 사는데 투자하시기를 원하시면 연락바랍니다.
4521 PARK AVE. SUITE 320, MONTREAL, P.Q
MONTREAL MANAGEMENT SERVICES Co.
☎: 849-0959, 7374~6

이상적인 가족 비지네스(H·SALT 휘시 & 칩스, 휘트비)
그로스 : $2160/W 네트 : $930/W 아스킹 $60000
☎: 683-7777(앤디·밴도라)

좋은지역에 위치한 바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가정형편상 급매코자 함)
☎: 531-0773 Mr. 김 (직접내방바람)

자동차 급매
75년 로얄·모나코 68,000마일 A-1콘디숀, 보증서 해줌.
☎: 530-1491 $1295.00

제인 × 세파드
1000 sq. + 완전히 FULL지하실
오후5시 전화요망
☎: 449-0676

집·방세·하숙

집세놓음
4BED ROOM 월 $500(PHARMACY × 세퍼드)
☎: 757-6334(오후6시이후)

사 진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535-7772 630 BLOOR ST. W. TOR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 각종카메라·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 각종·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534-1085 김 춘 학

무지개 칼라- 36 NEAPOLITAN DR.
438-4435
• VIDEO 촬영 • wedding
• commercial • wall decors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274-4323
50 BLOOR ST. W. ☎: 967-7121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SIGN & GRAPHIC, 건축설계상담시공
바우종합광고회사 637A BLOOR ST. W.
☎: 535-0647, 465-1722 송 관 현

미 용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김스 미용실
☎: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 하우스 뒤)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보 석

다이아몬드·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537-0432(B), 534-3346(R) MR. LEE

Young'S JEWELLERY ● 보석전문가(보석주문, 감정
디자인, 개조, 수리일체) ● 도매시세로 최고 품질을 최저
시세로 매매(책임보증)B) 284-9325 R) 281-1954

시설및 수리

집수리·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431-0102 미스타 박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438-3795 김 영 호

목공소 **FineWoodwork**
676•1173 769•9468 조 상 민
상점시설및 주택개조·사우나 설치
진열장·카운터·홈빠·책장등 가구제작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222-4682 김 수 중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Modern Pianos
한일의 SOLOMON 피아노가 서울서 도착! 모던 피아노로 와서보고 구입하세요. ☎: 665-5600
97NORFINCH DRIVE, DOWNSVIEW.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현의상실
각종양장 마춤전문 ☎: 769-1559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630-6602
나 라 운 수

인벤토리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에어콘·히팅·냉장고

Palmer's 시설·판매·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취심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센 츄 리 냉 동 원 종 성, 이 인 식
☎: 221-5441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749-3178 김 진 환

사무실·점포 렌트

조용한 사무실 세놓습니다.
(DUPONT & DUFFERIN)
☎: 533-2364

여 행 사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928-3335 김현두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536-2155 김창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21A BLOOR ST. W.
535-2377 유지원

자동차수리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 651-9324(B)
자동차 수리 일체). 226-5430(R)
20 ROGERS RD. 변 달 원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625-0698 최 원 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 생화, 조화, PLANTS * GIFT취급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용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622-8516(B), 279-8719(R) 허소피아

꽃도매상 437 CARLAW AVE. TOR
* 각종 CUT FLOWER, 생화, HANGING PLANT, TREE.
* 꽃과 화분을 취급하는 스토어
* 개업인사, 각종파티, 사무실용, 방문
☎: 465-8167 (MR. 김, MR. 곽)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면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차이나타운내(465 DUNDAS W.)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서 울 한 의 원
● 30여년간 서울에서 한의원 경영
● 대한한의사협회장외 한의학발전공로표창장10여회 수상
● 진료과목 : 한방내과·신경과·부인과·정구과·산후보약
주소 : 10 Blackfriar Av #216 Weston, Ont. (Kipling × Dixon)
☎: 247-9347 한의사 : 김 장 석 (왕진함)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AUGA 전화 : 273-7300

R. I. A. 김 인 규
ACCOUNTING & TAX 844-0178

태 권 도

손명수 태권합기도장 :
2186 BLOOR ST. W. (사범 : 손명수)
(AT RUNNYMEDE써브웨이) ☎: 763-1155

박종수 태권도장(사범 박종수)
719 YONGE ST
☎: 961-7100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기 타

니폰·비데오 많은 한국테이프가 새로구입
주6일 오픈. 1993 DANFORTH AVE. TOR.
☎: 698-0633 하마구씨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92A REXDALE BLVD., REXDALE ☎: 746-2120 조 혜숙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 전문 :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
☎: 537-0432 미스타 리

ZAP SUREKILLER 368-9018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HUNTS BAKERY
X-MAS 생일, 단체용 CAKE 주문
☎: 769-4347 (던다스 AND 스카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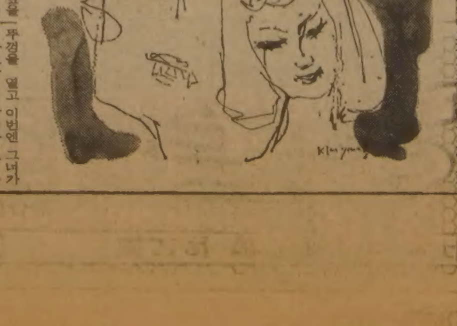
광고접수 안내

「한국일보 안내광고」는 이민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월~금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 매주 목요일 3시까지 접수된 안내광고는 다음주 월요일부터 게재됩니다.
CALL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부

중 앙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532-3946 길창세

바다에서 플룻을 <3>

梁順錫 作
金鈴 畵



시린 느낌의 겉모습에서 참으로 따스한 정(情)이 스며나는 기이한 불균형의 남자였다.

『왜 바다로 가십니까?』

『왠지 끌려요. 그건 어리석은 질문이군요. 설명할 수 없어요』

소모뿐인 도시에서의 생활, 정신도, 시간도, 감정도, 돌이킬 수 없이 소모하였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채 끝없이 낭비만 하였다.

『왜 바다로 가시나요?』

이번엔 내가 물었다.

『바다는 그리 중요한 것이 못됩니다. 바다든, 산이든, 아무 의미도 없읍니다. 그저 차를 타고 떠나 있는 그 시간에 만족할 따름입니다. 때로는 차를 타고 영원히 어디론가 귀하지 않고 달리고 싶을 때가 있읍니다. 차에서 내리면 다시 반복될 일들, 걷고, 먹고, 잠자고, 살아갈 일부를 유예시키고 싶을 때가 있읍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지요』

그는 마치 연극의 대사를 외듯 성실하게 자신의 답변을 했다. 나는 그가 안고 있는 짐이 내 고뇌의 무게보다 훨씬 무거우리라는 걸 직감했다.

『괴로우신가요?』

나의 직설적인 물음에 그가 또 한번 입을 벌려 소리없이 웃었는데 예의 그 덧니가 햇빛에 희게 드러났다. 사랑스러운 덧니야. 나는 그 덧니의 마력으로부터 놓여나지 못했다.

『무얼 하시는 분인가 알아맞혀 볼까요?』

그가 덧니를 감추며 한결 경쾌한 어조로 물었다.

내가 무얼 하는 여자인가, 서편 교사(校舍)의 계단식 음악실에 놓인 조율이 안된 피아노, 그 앞에 앉아 있는 여자의 탄력을 잃은 손가락, 음악책을 들고 종일 들락날락하는 변성기의 남학생들에게 2도화음, 3도화음을 설명하고 올드 블랙조의 계명창을 부르게 하면, 1주일에 한두번 배정된 음악시간을 그저 장난기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시간쯤으로 여기는 녀석들은 여기저기서 아싸리비야, 삐약, 삐약 하곤 했다. 종일 아이들과 목청 씨름을 하다보면 오후 시간이면 서랍에서 비타민C를 꺼내 혓바닥에 넣어야만 했다. 가을이 지나면서부터 아이들의 하교시간 후엔 시간이 남았다. 해가 일찍 기울었으니까. 교사 뒤편 야산의 그늘자락이 학교를 서서히 덮어내려오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을 어둠이 쫓아가고 운동장마저 어둠에 잦아들었다. 은행잎은 떨어져 이제 발에 밟히며 바스라지는 소리를 냈다. 함께 발령 받은 젊은 동료 영어선생과 스웨터를 등에 걸치고 그 은행잎들을 밟으며 서편 교사로 갔다. 낡은 피아노의 뚜껑을 열고 이번엔 그녀가 피아노를 치고 내가 노래를 불렀다. 아델나이데, 아델나이데, 천선생 목소리는 하늘같아. 그녀는 중학교적 체르니치던 실력으로 조율 안된 건반을 감상에 젖어 눌렀다. 우리 같이 부릅시다. 뭐 부를까? 들노래. 꽃이 피는 봄이 왔네, 아름답던 들아와, 2부화음 그녀는 엘토, 나는 소프라노, 잠겼던 목이 어느새 새롭게 터지고 나는 저물녘 내내 노래를 불렀다. 어둠이 겹겹이 질주해와 악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천선생, 플룻소리 한번 들읍시다. 싫어. 왜. 플룻이 전공이었다면서? 녹이 슬었을거야. 음악실을 나서면 저문 산에서는 플룻을 부는 소리가 들렸다. 아름다운 환청이었다. 천선생, 왜 플룻 안 불어? 무슨 사연이라도 있어? 사연은 무슨 사연. 저문 산에서 들려오던 환청이 끊겼다.

『또 무얼 생각하십니까?』

그의 얼굴이 씻긴듯 선뜩 다가섰다.